

제2부

부문별 발전전략

제1장 충북의 문화정체성 확립

제2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제3장 특성화된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제4장 문화 향수기회의 확대

제5장 문화콘텐츠산업의 육성

제2부 부문별 발전전략

제1장 충북의 문화정체성 확립

1. 여건 변화 및 현황

1.1 여건 변화

(1) 문화정체성에 대한 인식 변화

- 문화는 인류가 축적한 유무형의 물질과 정신의 총화로 정의될 수 있음. 저명한 문화인류학자 타일러는 ‘문화 또는 문명이란 지식·신앙·예술·도덕·법률·관습 및 기타 사회구성원인 인간에 의해 획득된 모든 능력과 관습의 복합 총체이다’라고 규정한 바 있음
- 유네스코는 이것을 토대로 ‘문화는 사회와 집단의 정신적, 물질적, 사상적 그리고 감정적 특징의 제도체이며 문화는 예술과 문학을 포함하여 생존방식, 집단적 생활의 방법, 가치체계, 전통 그리고 신앙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했음
- 1990년대 들어서 쓰이기 시작한 지역문화라는 개념은 중심주의를 해체하고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현대적 개념임. 이 관점에서 충북 지역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함
- 1990년대 수립한 충청북도 문화발전 중장기 계획은 ‘문화강국(C-KOREA) 2010’으로 대치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 2006~2020년’에 맞춘 충북발전계획을 문화예술에 접목시켜야 함
- 문화와 문명에 대한 21세기적인 인식이 필요함. 근대의 민족국가 또는 국민국가(nation state)에서의 지역문화와 세계화 시대에서의 지역문화는 그 층위와 기능 그리고 역할이 달라질 수 있고, 달라져야 함

(2) 세계화와 지방화의 결절점

- 세계화의 시대에 문화의 층위는 세 단계로 구획됨. 세계시민으로서의 보편적 시민문화, 민족구성원으로서의 민족문화, 지역공동체로서의 지역문화, 이 세 층위는 경중을 가릴 수 없을 만큼 균등하게 작동되고 있음
- 세계문화, 국가문화(또는 민족문화), 지역문화의 삼차원적 문화층위 속에서 충북의 지역문화는 새로운 전망을 창출해야 함
- 민족문화의 국가적 구조 속에서 지역문화의 정체성 확립의 필요성 대두. 충북 지역문화와 같은 지역의 문화는 국가문화나 민족문화의 하위 영역이기는 하지만, 독자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독자적 특성을 가진 문화단위임
- 현재 충북문화와 같은 지역문화는 독자적 개성을 상실하고 천편일률적인 대중문화로 동화(assimilation)되어 가고 있음

(3) 문화사회를 향한 충북의 미래사적 전망

- 문화사회(culture society)와 문화국가(culture state)는 이상적인 목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목표임. 충북은 한국이라는 문화국가의 부분으로서 문화사회를 이루어야 함
- 문화사회를 향한 목표는 이상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구체적이고 치밀한 계획 속에서 노력을 통하여 가능한 것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의 문화는 정치행정적 개념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생활과 생존을 규정하는 절대기준이기 때문에 문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는 반드시 필요한 전략임
- 21세기 문화환경에서의 충북지역문화는 정체성을 가질 수 있을 때만이 열린사회, 문화사회(culture society)로 나갈 수 있음
- 충북문화가 무엇인가 하는 본질적이고 원론적인 물음을 통하여 지역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나아가 새로운 전망을 기획해야 함

- 그리고 문화적 동질성(cultural identification)을 통하여 개개인 삶의 정체성 확립에 도움을 주고, 생존공동체인 충북의 미래를 전망해야 함

(4)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 충북문화, 증원문화, 서원문화, 직지문화, 상당문화, 나제(羅濟)문화, 남부지역문화 등 가능한 문화영토의 개념을 정치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전통문화와 대중문화 결합의 필요성 대두. 충북의 전통문화는 충청의 성리학(性理學) 정신을 바탕으로 형성되어 왔음
- 복고적인 전통문화는 현대에 부적합하고 또 문화주체자인 현대인에게 생소함. 따라서 전통문화의 장점을 계승 발전시키되, 현대적인 대중문화와 결합할 필요가 있음
- 중앙중심문화지향에서 지역문화중심으로 변화. 19세기 조선 후기의 봉건전제군주시대의 문화에서 식민지적 근대문화로 넘어오면서 수많은 모순이 축적되었음
- 외래문화의 무분별한 모방이나 무조건적인 배척은 식민지와 반식민지를 겪은 국가들이 가진 공통적인 문제점임
- 그 과정에서 민족전체의 문화라는 개념의 민족문화가 형성되었는데 이것은 민족과 국가 전체를 하나의 동일한 문화단위로 놓고자 하는 자민족 중심지향의 문화였음

(5)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

- 21세기 문화변동은 단일문화에서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로의 변화와 문화적 순혈주의에서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으로, 자민족중심주의에서 이민족인정주의로의 변화가 요청됨
- 문화적 동질성만 강화할 경우 폐쇄성으로 말미암아 문화적 고립의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음. 이질성, 다양성, 혼종성의 열린 문화사회(cultural society)로 충북을 설계할 필요가 있음

- 포스트모더니즘과 탈식민주의(post-colonialism) 시대에는 현실의 공동체도 중요하지만, 사이버나 가상의 공동체도 중요하다. 실제의 공동체인 충북과 더불어서 가상의 공동체인 충북에서의 정체성 확립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음

1.2 현황 및 문제점

(1) 충북인의 문화적 기질과 성품

- 충북인들은 기질적으로 현실순응적인 측면이 많음. 따라서 진취적이고 발전적인 역동성이 부족함. 그 어떤 정책이나 이론이 있더라도 진취성과 역동성을 갖지 못하면, 실행될 수도 없고 실행되더라도 의미를 획득하기 어려움
- 이 문제는 단기간의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는 한계를 분명히 인식시키며 따라서 정책과 이론에서 과감하고 진취적인 내용을 지속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2) 민·관의 협력 부족

- 민간과 관청의 관점 상치 현상 :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역정체성을 이해하는 민간과 관청의 관점과 실행방법이 상이함으로 인하여 통합적인 효과를 내지 못함
- 따라서 민관이 협력하고 공조하면서 생존공동체의 정체성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문화나 역사는 정치경제보다 덜 중요한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 있으며, 정책적으로 볼 때 언제나 문화를 중요시한다고 했지만, 언제나 소홀히 취급되어 왔음
-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의 문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문화나 역사가 중요시될 수 있음

(3) 다문화주의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제고

- 다문화시대와 문화적 다양성 시대에 맞는 문화적 정체성의 확립이 시급함 : 열린 민족문화, 열린 지역문화의 자세와 태도로 충북의 문화적 정체성을 새로 구성해야 할 시점임
- 문화적 정체성은 단순히 문화예술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환경의 전반을 규정하는 포괄적인 주제임. 따라서 문화를 통한 정치/경제/사회/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야 함
- 문화적 정체성이란 문화 그 자체의 정체성과 아울러서 문화를 통한 충북사회의 정체성을 담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함
- 정체성은 충북이라는 운명공동체의 정신사적 중심축임. 따라서 같은 운명을 가진 하나의 동질성과, 동일성의 정신사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그 결과, 현대적인 가치로 재창조할 필요가 있음
- 하지만 충북의 모든 문화적 가치를 정체성 확립의 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음. 정체성이란 동질성의 정신사적 가치를 말하는 것이지만, 세계화의 시대에 맞는 열린 정체성, 열린 지역주의가 되어야 함

(4) 정체성 부재의 타개책

- 정체성의 부재는 정신적 공허를 낳고, 정신적 공허는 자기주체의 부정이라는 악순환을 되풀이 함
- 충북의 문화적 정체성이 중용, 조화, 균형을 중시하는 보편성(universality)라는 점을 재인식하도록 함
- 열린 민족주의와 열린 지역주의를 세계화의 패러다임(paradigm)에 맞추어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그것은 인위적으로 형성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운명공동체의 공통적 열망을 제시할 필요는 있음. 그런 점에서 충북이라는 운명공동체의 미래를 설계할 시점임

(5) 충북의 정체성 재확립

- 충청(忠淸)의 정체성은 충주와 청주에 있었음. 하지만 개화기와 근대를 지나면서 충북, 충남, 대전으로 삼분되면서 소지역적 정체성으로 변화했음
- 충북문화는 정체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근대적이고 민주화된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충남, 대전과 정체성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6) 문화권 재구조화

- 문화권역(文化圈域)에 대한 인식의 부재 : 충북의 경우 충북문화라는 행정적 용어의 한계가 있었음. 그 대안으로 중원문화라는 개념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 개념은 충북 북부 지역에만 해당하는 영토(territory *영토는 들뢰즈의 용어)라는 한계가 있음
- 문화권이란 공통된 문화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일정한 지리적 공간적 범위를 뜻하는 것으로 동시에 두 개 이상의 지역 사이에 전통, 풍습, 언어, 예술, 기술 문명 등에 이르기까지 인간생활의 전체를 포괄하는 문화전반에 시간적 선·후 관계의 관련성을 같이하는 문화층을 뜻함
- 1980년대 전국을 5대 문화권으로 구분할 당시 충북의 중원문화는 다른 문화권역(백제, 신라, 가야, 탐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동질성이 미약한 상태로 지정되었음
- 지난 15년간 중원문화권 연구 및 정책 개발에 소홀했음. 그 결과 안동문화권, 백제문화권, 신라경주문화권과 같은 문화권역의 상징적 개념을 획득하지 못함
- 시간의 경과와 함께 중원문화의 정체성이 미약해지면서 특질의 생명력 유지 또한 쉽지 않은 상황임
- 중원문화는 왕조중심의 고급문화가 아니라 일반대중 중심의 생활 문화적 개념의 성격을 띠고 있고, 역사적 특성으로 오랜 생활중심의 고대 문명 발상적 성격을 가짐

- 충북문화(忠北文化)라는 개념으로 충북의 문화를 정의할 수 있으나 그것은 정치행정적 개념에 한정해 쓰일 수 있음
- 반면 중원문화는 제천, 단양, 충주 일대를 문화권역으로 하기 때문에 충북 전체를 정의하는 문화개념이 아님
- 충북문화라는 정치행정 개념 이외에 충북북부중원문화권, 충북중부상당서원문화권, 충북남부금강유역문화권으로 삼분하는 개념이 필요함
- 또한 충북문화는 중원문화권역, 직지문화권역, 나제문화권역 등으로 재구조화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중원문화(中原文化)의 개념을 연구한 김영진과 한병삼은 한강과 금강, 소백산맥과 차령산맥을 끼고 역사적으로 발전해온 문화로 국토의 중앙이라는 지리적 의미와 삼국의 접경지라는 역사적 의미, 청풍명월과 선비문화로 대변되는 충북, 경기, 경북의 일부지역 문화를 포괄하는 문화권역으로 설정함
- 중원문화의 개념을 (1) 유구한 역사성을 가진 문화, (2) 지방적 부도(副都) 문화, (3) 지정학적으로 한반도의 중심문화, (4) 청풍명월의 문화, (5) 선비문화, (6) 내향적 특성의 문화, (7) 생활중심의 문화, (8) 복합적 문화로 규정할 수 있음

2. 종합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2.1 종합분석(SW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통지향의 안정적인 문화충위와 문화환경 보유 · 중원문화라는 중용(中庸)의 문화, 조화의 문화, 문화적 보편성(university) · 내륙문화의 특성으로 균형자의 역할 가능 · 충북인들의 정서와 열린 마음은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 제시를 가능케하는 좋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 안정성이라는 장점은 반대로 문화적 자기개성 또는 자기정체성의 미약으로 나타남 · 전통문화의 중력(重力)이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작용 사회변동과 역동성을 발휘하지 못함 · 충북인들의 수동적 자세는 문화의 폐쇄성을 유발하고, 문화의 폐쇄성은 정체성의 약화
강점	약점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세기의 새로운 문화환경을 맞아 적극적으로 문화정체성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 · 세방화의 시대적 요청에 의한 새로운 문화정체성 확립시기 · 문화분권시대와 발맞춘 자생적 문화주의 표출기 · 지역의 정체성에 대한 관심과 인식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우선주의, 경제절대주의는 상대적으로 문화를 약화 · 2000년대 들어서 국가와 국민 전체의 모든 것을 경제적 효율성으로 재단하는 경향 · 한국이라는 국민국가 전체가 균일화, 동질화되어 가는 경향 · 국가 전체가 하나의 문화현상, 하나의 정신, 하나의 행동양식으로 백화점식 열거형으로 변화

2.2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충북의 정신을 오늘에 되살리는 문화정체성 확립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충북 정신문화의 고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의 정신사 연구 · 호서사림의 본향, 충북의 유교적 전통 현대화 · 충북의 여성인물상 발굴 및 선양 · 근대문학의 성지, 충북의 재발견 · 중부권 전통국악의 활성화 · 직지특구 활성화 방안
	자연과 어우러진 문화환경적 가치 창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립공원의 문화환경적 가치 재구조화 · 백두대간 고갯길의 문화환경적 가치 · 충북의 구곡문화
	문화권 발전전략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문화의 재해석 · 중원문화권의 개념 및 범주 설정 · 직지문화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나제문화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3. 세부 추진사업

3.1 충북의 정신사 연구

사업목표

- 보은 동학, 제천 의병 및 홍범식 선생의 독립운동 등 충북지역의 역사적 저항정신을 재발견하여 정신사적 가치를 함양함
- 이들 지역을 충북의 정신사적 발원지로 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역적 자긍심을 고양시키고자 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보은의 동학, 제천의 의병, 그리고 괴산의 애국지사 홍범식 선생의 땅인 충북지역은 역사적 민족정신, 저항정신의 산실임
- 민족자주와 민족주체의 역사를 현대사에 접목시키고 그를 바탕으로 충북의 진취적이고 자주적인 정신을 고양함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보은군, 제천군, 괴산군 일대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현재 각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적지 정비사업 등과 연계
 - 도내 지역 및 타도지역과 연계하는 민족정신, 저항정신의 메카로 가치 부여

(3) 추진 계획

- 2009년 : 기초 작업 세미나 개최 및 각 지역의 유적지 사업에 대한 종합기획
- 2010 ~ 2012년 : 충북 정신사의 개념 연구

- 2013년 : 연구결과 공청회 및 보고서 정리 출간
- 2014년 이후 : 정례 세미나 및 연구회 발족

(4) 기대 효과

- 이 연구를 통하여 충북과 민족·저항운동사의 관계를 밝힐 수 있음. 충북이 외세에 저항하는 저항 및 민족운동의 중심 지역이었음을 밝히는 것은 충북의 정체성 확립에 중요함
- 충북인의 문화적 기질이 민초에 근거한 민족적·저항적 기질이라는 정신사적 정체성의 확립을 통해 문화발전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음
- 해당 유적지를 이론화하여 한국사의 중요 개념으로 등재함. 이들 유적지 정비를 통하여 역사관광유적으로 자본화함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300	30	30	30	30	30	150
국 비	-	-	-	-	-	-	-
지방비	300	30	30	30	30	30	150

3.2 호서사림의 본향, 충북의 유교적 전통 현대화

사업목표

- 충북을 선비의 고장, 충효의 지역이라고 하는 유교적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 현대화 작업을 꾀함
- 여말 선초의 정치가이자 유학자였던 삼봉 정도전과 주자학으로 대표되는 노론의 영수이자 조선 후기의 대학자였던 우암 송시열 등 충북을 대표하는 수많은 유학자들의 유교적 사상을 충북정신의 하나로 규명해 보는 작업의 일환임

(1) 추진 배경(필요성)

- 여말에서 조선후기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호서사림의 본향으로서 충북은 유교적 사상 및 전통의 중심에 서 있음. 따라서 이러한 유교적 전통을 현대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성리학의 기반과 충북의 정체성이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좀 더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게 됨
- 충북의 유교적 전통과 영남의 유교적 전통을 하나의 정신사적 길항관계로 묶어, 양 학파간의 상호교류를 꾀함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괴산군, 보은군, 옥천군, 단양군 일대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충북지역 유교사상의 역사적 가치와 공과 비교
 - 유교철학의 현대적 가치 재정립

(3) 추진 계획

- 2009년 : 충북지역 유교사상의 가치 평가 및 정신사적 가치
대한 세미나
- 2010년 : 유교사상과 충북정신사의 새로운 정립
- 2011년 : 충북지역과 경북지역 간의 학술 교류 확대

(4) 기대 효과

- 충북과 유교문화의 특징을 구체화할 수 있음
- 호서사림과 영남사림의 문화적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음
- 유교문화와 연결되는 유·무형의 문화유적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300	30	30	30	30	30	150
국 비	-	-	-	-	-	-	-
지방비	300	30	30	30	30	30	150

3.3 충북의 여성인물상 발굴 및 선양

사업목표

- 가부장제의 남성중심구조에서 역사적 여성 인물과 여성 주체의 양성평등의 동반주체를 지향함
- 여성의 주체성과 여성이 중심이 되는 사회를 희망함
- 문화의 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실천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봉건 시대의 유교 이데올로기가 남성중심이었다는 비판이 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음
- 21세기의 시대정신이 합당한 양성평등의 새로운 문화적 인간형을 창출해야 함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일대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상징적 여성주체인물형 발굴
 - 역사적 여성인물형을 연구하고 대중화함
 - 현대사회에서 여성주체의 확립 방안 제시
 - 미래 충북의 주체적 여성상 제시

(3) 추진 계획

- 2009년 : 충북 여성주체 인간형 연구팀 결성, 연구 및 세미나 개최
- 2010년 : 역사적 여성인물 및 여성주체 인물형 제시
- 2011년 이후 : 지속적 연구 진행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여가부의 제반 정책과 관련 법률 연구
- ▶ 충청북도와 각 기초단체의 여성주체 양성평등의 사례 수집

(4) 기대 효과

- 여성주체 인물형을 통하여 양성평등을 이룩함
- 문화의 민주주의와 문화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이후
계	800	100	300	400	지속운영
국비	350	-	150	200	
지방비	450	100	150	200	

3.4 근대문학의 성지, 충북의 재발견

사업목표

- 신채호, 정지용, 오장환, 홍명희, 김기진 등 충북출신 근대문학가들의 문학적 가치를 재발견함
- 이는 단지 문학을 넘어서서 충북문화 전체의 중요한 개념이자 토대이고 또 한국 전체의 예술적 자산임

(1) 추진 배경(필요성)

- 근대문학사에서 충북의 사상과 감성을 담은 작가들의 의미를 문학영토(literature territory)로 분석하고 그를 통하여 충북의 문화와 예술을 새롭게 봄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전체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150백만원
- 사업내용
 - 충북근대문학사의 대강을 설정함
 - 충북문학이 민족문학이나 한국문학이 될 수 있는 연결점을 찾음

(3) 추진 계획

- 2009년 : 문학영토 그리기 및 충북과 관련된 작가 확정 및 자료수집, DB구축
- 2010년 : 충북출신 근대문학가 위상 정립
- 2011년 : 충북근대문학사 완성

(4) 기대 효과

- 충북 문학의 의미를 재발견함
- 충북문학사를 새롭게 조망함
- 충북문학과 한국문학의 관계를 설정함
- 향후 충북의 정체성 탐구 등 문화예술정책 수립에 절대적으로 필요함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50	50	50	50	-	-
국비	-	-	-	-	-	-
지방비	150	50	50	50	-	-

3.5 중부권 전통국악의 활성화

사업목표

- 난계와 우륵은 충북의 자랑할만한 문화유산임. 이 문화유산의 현대화 대중화 정책을 펼 필요가 있음
- 난계는 충북 남부지역의 영동, 우륵은 북부지역의 충주라는 지리적 위치도 중요함
- 충북을 타지역과 차별되는 전통국악의 고장으로서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증원문화와 음악의 관계를 규명하여, 전통 대중음악(판소리, 민요) 등이 미약했던 충북의 문화사적 특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충북이 민족음악의 생산지이자 중심지였음을 강조함으로써 예술과 문화의 사각지대로부터 벗어날 계기를 마련함
- 경기, 전라, 영남지역과 구별되는 중부권 전통음악의 중심지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음

(2) 사업 개요

- 위치 : 도내 충주시 및 영동군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2,000백만원
- 사업내용
 - 한국음악의 문화사적 의미 정립
 - 타지역 전통음악과의 차별성
 - 충북의 정신사와 전통음악의 관계 규명

(3) 추진 계획

- 2009년 : 난계와 우륵의 관계 설정 및 연계 학술대회 개최
- 2010 ~ 2012년 : 난계와 우륵의 현대화 연계
- 2013년 : 전통음악과 현대음악의 접목
- 2014년 이후 : 각종 경연대회 및 세미나 등의 지속적 개최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경기도의 전통음악과의 관계 검토
- ▶ 이론과 실제의 조화

(4) 기대 효과

- 영동과 충주의 전통문화를 관광자원화할 수 있음. 전통적으로 음악은 예악(禮樂)으로 불렸는데 고려, 조선을 거치면서 정악과 속악으로 구분되었고, 자연스럽게 국악 즉 국가의 음악이라는 개념으로 정착되었음
- 북부권과 남부권의 두 축을 설정하여 다른 지역의 전통음악적 의미를 강화할 수 있음. 또한 타지역과 구별되는 중부권의 전통국악으로서의 차별화를 꾀할 수 있음
- 거문고와 가야금 등의 악기산업을 문화관광과 연결하여 문화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2,000	20	450	450	450	450	180
국비	1,000	10	225	225	225	225	90
지방비	1,000	10	225	225	225	225	90

3.6 직지특구 활성화 방안

사업목표

- 직지는 1377년에 만들어진 현존하는 세계 최고(最古)의 금속활자본으로 충북을 넘어서서 세계적인 가치가 인정되는 유산임
- 인류문명사의 빛나는 가치를 청주라는 울타리에 가두어 두지 말고, 현대의 역동적인 가치로 재생산할 필요가 있음
- 청주지역은 이미 직지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 문화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세계문화사에 직지가 주요한 문화사적 사건으로 등재되는 것을 목표로 함
- 일본, 중국 등 동양 삼국의 인쇄문화와 문명사의 새로운 비전을 창출할 필요가 있음
- 청주를 인쇄문화와 문명사의 중심지로 부각시켜 세계적인 문화도시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함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청주시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3,000백만원
- 사업내용
 - 직지에 관한 사업은 이미 잘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직지특구의 활성화를 추진하고자 함
 - 직지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일환으로 청주일원의 직지특구를 바탕으로 세계적 문화도시로서 각광받을 수 있게 함

(3) 추진 계획

- 2009년 : 직지특구 활성화 방안 및 로드맵 수립
- 2010년 : 세계문화사에 등재할 수 있는 기획 수립
- 2011년 : 직지문화에 기초한 세계적 문화도시 선정 계획수립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협력
- ▶ 직지문화의 세계화 추진
- ▶ 청주시와 협의

(4) 기대 효과

- 직지의 문화사적, 문명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그를 통하여 충북의 문화적 수월성을 창안할 수 있음
- 인쇄문화와 관련이 있는 철(鐵) 주조 기술, 학술, 종이제조 기술, 불교문화 등의 전통문화 전반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정초할 수 있음
- 직지를 문화산업으로 재생산하는 한편 고인쇄박물관을 중요한 역사문화 탐방지로 만들어 세계화함
- 직지의 세계화를 통해 청주지역을 세계적 문화도시로 재창조할 기회를 가짐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000	1,000	1,000	1,000	-	-
국비	1,500	500	500	500	-	-
지방비	1,500	500	500	500	-	-

3.7 국립공원의 문화환경적 가치 재구조화

사업목표

- 충북지역 국립공원의 민속학적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지배계층의 양반문화만이 아닌 민중문화의 토대였음을 밝혀야 함
- 국립공원과 주변을 연계하여 문화사적, 생태학적 의미를 재생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충북은 많은 명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속리산, 월악산 등 상징적으로, 지리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빼어난 산수(山水)를 다수 갖고 있음
- 국립공원 주변의 문화역사적 의미를 연구하고 조사하여 월악산 문화, 속리산 문화, 소백산 문화 등의 문화사적 개념을 도출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월악산·속리산 국립공원 일원
- 사업기간 : 2010 ~ 2018년
- 투자계획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국립공원 일대의 문화사적 의미 정립
 - 생태환경적 가치 재발견
 - 국립공원 일대 문화지표 조사
 - 새로운 개념의 공원화

(3) 추진 계획

- 2010년 : 속리산·월악산 문화의 개념 정립 및 문화지표 조사
- 2011 ~ 2012년 : 각 문화의 특수개념과 일반개념 연구
- 2013년 : 연구결과 공청회 및 보고서 정리 출간
- 2014년 이후 : 각 문화권에 따른 보존 및 개발계획 수립

-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국립공원의 보전 계획 검토
 - ▶ 환경관련 법률 검토

(4) 기대 효과

- 국립공원 내 명산의 문화적 가치를 독자적 개념으로 분리하여 하나의 역사문화 개념으로 만들 수 있음
- 각 국립공원 주변의 문화적 특질을 찾아낼 수 있음
- 국립공원 내의 문화자산과 문화자본을 과학적으로 정리할 수 있음
- 이미 관광자원화되어 있는 국립공원의 역사적, 문화적, 정신사적 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500	-	100	100	100	100	100
국비	250	-	50	50	50	50	50
지방비	250	-	50	50	50	50	50

3.8 백두대간 고갯길의 문화환경적 가치

사업 목표

- 백두대간에는 수많은 고갯길이 있는데 이 고개의 가치를 역사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조명하고자 함
- 대간의 고갯길과 강(江)의 나룻길을 잇는 소통의 방법과 정신, 그 주변의 생활문화사를 연구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충북은 백두대간이 지나가는 중심축임. 이러한 중추성을 살리고 알리는 것이 필요함
- 고개는 소통의 방법이자 실체로서, 전근대에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현대에도 중요함. 그런 고개의 문화적, 역사적, 환경적 가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전체
- 사업기간 : 2009 ~ 2013년
- 투자계획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백두대간 고갯길의 역사 연구
 - 고개가 가지는 가치의 일반적 연구
 - 고개와 강나루의 의미 연결
 - 역사적 환경적 의미가 있는 고개의 문화자본화

(3) 추진 계획

- 2009년 : 백두대간 고개의 기초조사 및 세미나 개최
- 2010 ~ 2012년 : 백두대간 고개 연구
- 2013년 : 연구결과 공청회 및 보고서 정리 출간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국립공원의 보전 계획 검토
- ▶ 행정상 도로교통법과의 관계 검토

(4) 기대 효과

- 백두대간의 명성을 높이고 충북의 문화자산을 풍부하게 할 수 있음
- 국립공원과 다른 개념으로 역사문화환경의 장소를 지정할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0	20	20	20	20	20
국비	-	-	-	-	-	-
지방비	100	20	20	20	20	20

3.9 충북의 구곡문화

사업목표

- 충북에 소재한 구곡의 문화적 가치와 예술적 의미를 재발견하고자 함
- 이를 토대로 구곡의 관광 및 산업적 가치를 높여서 충북의 정신사는 물론이고 경제적 의미를 확보하고자 함
- 구곡문화를 관광자원화시켜서 독자적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으로 만들 필요가 있음

(1) 추진 배경(필요성)

- 충북 괴산 일대의 구곡(九谷)을 문화적 의미로 재생산함. 괴산의 화양동은 조선 후기 대유학자인 우암 송시열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지역으로, 송시열은 주자의 성리학을 현실에서 실현하고자 괴산에 은거(隱居)했음.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현대화시킬 필요가 있음
- 중화주의적 구곡이 아니라 중원문화적 구곡의 개념을 설정할 필요가 있음. 이를 바탕으로 중국의 무이구곡과 괴산의 화양구곡을 비교하고, 중국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설명하며, 충북만의 문화적 특질을 유추함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괴산군 일대
- 사업기간 : 2009 ~ 2013년
- 투자계획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구곡의 문화사적 의미 정립
 - 한국의 구곡과 중국의 구곡 비교
 - 구곡에 대한 문화지표 조사
 - 구곡의 공원화

(3) 추진 계획

- 2009년 : 구곡과 문화의 개념 기초조사 및 세미나 개최
- 2010 ~ 2012년 : 구곡문화와 관광의 연계
- 2013년 : 연구결과 공청회 및 보고서 정리 출간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국립공원의 보전 계획 검토
- ▶ 역사문화적 이론 확립

(4) 기대 효과

- 구곡문화의 문화상품화를 통하여 충북의 문화관광자본을 증대시킬 수 있음
- 괴산은 산업, 경제, 정치적으로 소외감을 가진 지역이므로 구곡문화를 창안하여 충북과 중원의 중심이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 있음
- 수변문화라는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바다가 없이 육지만 있는 내륙문화에 문화적 다양성을 가미할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00	100	100	100	100	100
국비	-	-	-	-	-	-
지방비	500	100	100	100	100	100

3.10 충북문화의 재해석

사업목표

- 충북의 문화권과 문화사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와 검토를 하고자 함
- 역사·지리적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적 실체로서의 충북문화를 규정하고자 함
- 이를 바탕으로 한 충북문화권의 발전전략을 수립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일반적으로 충북문화라는 것은 문화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치, 경제, 행정적 개념의 성격이 강함. 따라서 충북이라는 행정의 영역, 즉 광역자치단체의 제반 문화의 총합이라는 개념임
- 문화권의 영토를 구획하고 또 그 구획이 타당한가를 검증함
- 각 문화권의 발전전략이 수립될 필요가 있음
- 중원문화, 서원문화 등의 개념은 역사지리적 문화권역의 개념임. 따라서 이러한 문화개념을 현재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역사지리적 개념으로서의 ‘충북문화’뿐만 아니라 정치행정적인 ‘충북문화’라는 영토적, 가치적 문화권역의 확립이 연구되어야 함
- 이로써 운명공동체로의 충북이 공유할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이에 따른 문화권역별 발전이 가능함. 또한 이를 통한 문화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전역
- 사업기간 : 2009 ~ 2013년
- 투자계획 : 5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속발전 가능한 충북문화의 의미와 개념 재해석

- 각 문화권역 설정 및 타당성 검토
- 충북문화권의 중장기적 발전전략 로드맵 설정

(3) 추진 계획

- 2009년 : 각 문화권의 설정에 따른 이론작업과 준비
- 2009 ~ 2010년 : 충북의 지역별 문화권역 설정 및 타당성 검토
- 2010 ~ 2012년 : 충북문화권의 중장기 발전전략 설정
- 2013년 : 연구결과 공청회 및 보고서 정리 출간

(4) 기대 효과

- 이 연구를 통하여 충북의 문화권역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음
- 충북문화의 재해석을 통해 충북지역 각 문화권의 관계를 재정립할 수 있음
- 향후의 문화정책 수립에 절대적 기준이 필요함
- 충북문화, 중원문화, 서원문화, 한강유역문화, 금강유역문화 등의 개념을 정립함으로써 충북 전체의 문화권역을 확정할 수 있음
- 충북의 기초자치단체나 지역 전체를 균등하게 구분하는 문화지형도를 그릴 수 있음
- 향후 각 지역의 문화권 개발에 따른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00	40	60	120	150	130
국비	-	-	-	-	-	-
지방비	500	40	60	120	150	130

3.11 중원문화권의 개념 및 범주 설정

사업목표

- 정치행정적 문화개념이 아닌, 문화역사적 문화개념이 도출될 필요가 있음
- 중원문화의 개념 정리 : 그간 중원문화에 대한 연구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개념과 의미의 불분명으로 인하여 혼선이 있었음
- 현재 진행 중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구상 수립에 관한 연구 결과의 현실화에 대한 기초작업의 일환

(1) 추진 배경(필요성)

- 1980년대 5대 문화권을 설정할 당시, 중원문화권은 타문화권(신라, 백제, 가야, 제주 문화권)에 비하여 동질성과 문화적 토대가 상대적으로 미약했음
- 1990년대 연구와 세미나 등을 통하여 중원문화의 개념을 정립하고자 했으나 여전히 부족함 편임
- 타문화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중원문화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과학적으로 설명하고 그를 토대로 중원문화의 발전을 모색할 수 있음
-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추진 중인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구상 수립에 관한 연구 결과가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의 의미가 있음
- 협의의 중원문화권 대상범위는 충주, 제천, 단양지역을 아우르는 월악산 및 소백산국립공원 지역 2646.8 km²임

(2) 사업 개요

- 위치 : 충주, 단양, 제천 일대를 중심으로 한 도내 전지역
- 사업기간 : 2009 ~ 2013년
- 투자계획 : 650백만원
- 사업내용
 - 중원문화의 개념 및 의미 분석

- 전국 문화권에서의 중원문화의 위치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에 관한 개발계획의 이론적 기초 정립

(3) 추진 계획

- 2009년 : 중원문화의 개념 연구 및 세미나 개최
- 2010 ~ 2012년 : 중원문화권과 문화산업연계
- 2013년 : 연구결과 공청회 및 보고서 정리 출간
- 2014년 이후 : 정례 세미나 및 연구회 발족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문화권의 개념 연구
- ▶ 전국 문화권 분류의 법적 개념 점검

(4) 기대 효과

- 중원문화의 개념과 실재를 학술적으로 규명함
- 학술적 결과를 통해 국가의 문화권역 구분에서 차지하는 중원문화권역의 의미를 재발견함으로써 중원문화의 특질을 선명하게 도출할 수 있음
- 충주, 제천, 단양을 포함한 월악산 및 소백산 국립공원 주변 지역의 독특한 생활상에 대한 문화개념적 접근
- 중원문화권 특정지역 계획의 현실화 작업에 박차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650	50	100	100	200	200	-
국비	-	-	-	-	-	-	-
지방비	650	50	100	100	200	200	-

3.12 직지문화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목표

- 직지문화의 현대화를 통하여, 직지문화의 미래지향적 개념을 제안함
- 충북의 중부지역인 청주, 청원의 경우 중원문화권과는 다른 문화적 특성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청주, 청원의 문화영토를 설정하고 정체성을 부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임
- 이를 통한 직지문화의 개발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청주, 청원은 고구려, 신라, 백제의 접경, 특히 백제와 신라문화의 특성을 공유하고 있는 공간임. 백제의 상당과 신라의 서원이 그 실체로서 상당문화적 성격과 서원문화적 성격이 공통적으로 발견됨
- 이러한 문화적 특징과 더불어 현존하는 세계최고의 금속활자본을 만들어낸 고대 문화발전의 중심지이기도 함. 이는 충북 북부지역의 중원문화권과는 구별되는 문화적 변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직지문화의 설정을 통해 청주, 청원일대의 새로운 문화지역을 설정하고 이를 계기로 직지문화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청주, 청원 일대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미래지향적인 직지문화 제안
 - 직지문화의 개념 정립 및 지역설정
 - 직지문화 중장기 개발계획 수립

(3) 추진 계획

- 2009년 : 직지문화의 지역설정 및 개념 검토
- 2010 ~ 2011년 : 직지문화권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3년 이후 : 개발계획 추진사업 조기추진 방안 검토

※ 법적검토 및 선행사항

- ▶ 직지세계화 등 직지관련 사업 검토
- ▶ 직지와 정보산업의 관계연구

(4) 기대 효과

- 청주, 청원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문화적 특질을 역사적으로 고구(考究)할 수 있음
- 직지문화의 특질을 선명하게 도출할 수 있음
- 직지문화의 개념과 실체를 통해 지역문화의 문화발전을 꾀할 수 있음
- 이를 통하여 지역 내 역사적 공동체의 개념을 복원할 수 있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00	-	300	-	-	-
국 비	-	-	-	-	-	-
지방비	300	-	300	-	-	-

3.13 나제문화 특정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사업목표

- 충북 남부지역은 정치경제적으로 충북이라는 정체성이 미약할 수 있음. 따라서 문화적으로 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충북이라는 운명공동체의 동일성(identification)을 확보할 수 있음
- 나제문화의 개념을 설정하여, 보은 옥천 영동의 문화적 동질성을 구축함. 하지만 나제문화는 충북 이외의 지역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북남부지역'이라는 지리적 구체성을 결합하여 문화지역을 분명하게 하고 실제 문화지역은 나제문화로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 타지역과 구별되는 문화지역의 설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의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

(1) 추진 배경(필요성)

- 충북 남부지역은 신라와 백제가 교역하고 소통하던 공간이었고, 쟁패를 다투던 공간이었음. 이것을 문화역사적 개념으로 재조명할 필요가 있음
- 나제문화의 개념을 문화지역으로 설정함. 문화지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으므로 더 작은 지역으로 한정하여 지정하는 것이 타당함
- 나제문화란 신라와 백제 지역에 해당되는 광범위한 개념이므로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중요한 기준인 수역(水域)으로 구분하여 수계의 문화적 의미를 고찰함
- 타지역에 선행되는 문화지역의 정립과 이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 필요

(2) 사업 개요

- 위치 : 충북 보은, 영동, 옥천 일대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나제문화의 설정, 제안
 - 나제문화 지역 설정 타당성 검토
 - 나제문화 설정에 따른 문화지역 개발계획 수립

(3) 추진 계획

- 2009년 : 나제문화의 지역설정 및 개념 검토
- 2010 ~ 2011년 : 나제문화지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 2013년 이후 : 개발계획 추진사업 조기추진 방안 검토

(4) 기대 효과

- 충청북도 남부의 문화적 의미를 재조명할 수 있음
- 옥천은 대전의 경제생활권의 성격이 있는 바, 충북문화권에 속해 있는 충북인이라는 정체성을 확립해 줄 수 있음
- 금강은 충북과 충남을 연결하는 수로이면서 문화통로였음. 따라서 충청도 정신의 발원적 성격을 가지는 금강유역문화 권역을 설정하고 강조하는 것이 필요함
- 광역의 개념에서 타지역에 선점하는 실체의 문화지역의 개념 설정과 개발로 지역발전에 기여함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00	-	300	-	-	-
국비	-	-	-	-	-	-
지방비	300	-	300	-	-	-

제2장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1. 여건 변화 및 현황

1.1 여건 변화

(1) 전통문화의 수요 증대

- 삶의 질에 대한 관심과 문화생활 영위의 확산
 - 1990년대 이후 국민소득 수준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문화생활에 대한 관심이 증폭
 - 2000년대 주5일 근무제가 도입되면서 여가시간이 증대, 이에 따라 문화생활을 적극 영위하려는 트렌드 추이
- 정부와 지자체의 전통문화 장려 정책
 - 정부는 1994년과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지정, 각 지자체는 2000년을 ‘지역문화의 해’, ‘문화의 달(2008.10)’로 지정
 - 정부는 외국인들에게 세계소리축제, 세계도자기축제 등 전통문화와 관련된 전통축제와 판소리, 사물놀이와 같은 국악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통문화를 홍보
 -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전통문화 선양에 주력, 나아가 문화산업의 현장으로 끌어들여 다양한 시너지 효과 창출
- 전통문화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 2001년 5월에 종묘제례악, 2003년 11월에 판소리, 2005년 5월에 강릉단오제가 유네스코에서 정한 ‘인류구전 및 무형문화유산결작’으로 선정
- 전통문화에 대한 주체적인 시각 확산
 - 교육인적자원부는 7차 교육과정 음악교과서에 국악의 비중을 42.7%로 높이고 앞으로 8차 교육과정에서도 국악의 비중은 높아질 예정임으로 학부모들의 전통문화교육 열기가 고조
 - 대학시절 탈춤과 풍물을 보면서 전통문화에 대한 주체적 시각을 갖게 된 386세대 학부모들이 아이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 전통문화 교육을 강화

(2) 전통문화의 지역마케팅 활성화

- 문화공간이 도시공동체를 구성하는 인프라 공간이라는 인식의 확대
 - 문화공간은 지역민의 통합기능뿐만 아니라 예술적 심미감을 통한 문화도시로서 이미지 상승효과를 발휘하는 공간
 - 지역의 전통문화는 해당지역을 가장 손쉽게 알려주는 홍보수단으로 지자체의 발전과 긴밀하게 연결
- 지역 자체를 상품이나 기업으로 인식하는 지역마케팅의 확산
 - 지역마케팅은 지역의 전통문화 및 관련 생산물을 자원으로 해당지역의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지역을 찾는 방문객들이 선호하는 콘텐츠를 창출해 자산 고부가 가치를 높이는 활동
 - 지역마케팅은 문화산업의 파급효과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한 부분으로 최근에는 문화마케팅이라는 용어가 부상
- 지역의 전통문화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확립
 - 문화 정체성은 지역문화의 본질성과 역사성, 전통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지역문화의 개성과 독특함은 지역의 이미지로 연결
 -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우리지역만의 독창성을 보여주는 차별화된 자산으로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제공하여 감동 유발
- 차별화된 전통문화를 통한 지역마케팅 효과
 - 해당지역의 고유한 이미지를 개발하여 지역마케팅에 적극 활용
 - 해당지역의 유·무형 전통문화 자산과 고유 전통지식 확대를 통해 지역마케팅의 고객 만족도 상승
 - 해당지역을 방문한 다른 지역 주민들에게 전통문화 활동의 소비뿐만 아니라 부수적인 소비활동까지 유도
 - 전통문화와 관련 있는 지역 연고기업의 문화산업활동으로 연결

(3) 전통문화의 문화유산관광 자원화

- 각 지자체는 전통문화의 관광자원화를 모색함에 있어 철저한 기초조사 및 관련 콘텐츠물 창출에 주력
 - 지방문화재 및 전통문화에 대한 기초조사와 관련 자료의 철저한 수집, 정리, 분석에 주력
 - 이외 해당지역의 인물, 정신, 학문, 민속, 특산물, 향토음식, 자연경관, 레저공간 등의 문화적·자연적 환경자원을 종합적으로 검토
- 문화관광프로그램 개발에 수요층의 요구 및 수요층의 수준에 부합하는 차별화 고려
 - 수요층의 수준이나 기호에 맞추어 교육형, 관람형, 체험형, 레저형, 복합형 등으로 구성
 - 지역축제 및 이벤트, 지역문화상품 등과 연계하여 지속가능성 고려

(4) 등록문화재제도의 활용

- 지방문화재 중 비지정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을 도모함에 있어 등록문화재제도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 특히 지방문화재를 등록문화재로 등록한 이후, 효율적인 보존을 위해 지역주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
 - 각 지자체는 지역의 등록문화재(예비지정 문화재 포함)에 대한 내역 및 지도 등을 담은 홍보지 또는 소개책자를 발간, 홍보하여 등록문화재의 가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유도
 - 등록문화재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경우, 지역주민이 조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여 지역주민의 관심 유발
 - 등록문화재의 소유자와 단체에게 지속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관리와 홍보 등에 적극적인 자세 유도
 - 등록문화재의 보존에 관한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함과 동시에 문화재내셔널리스트운동과 같은 민간단체의 지원을 육성
- 각 지자체는 등록문화재의 외관을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내부를 개조하는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 지자체가 주최하는 각종 홍보활동에 있어 지역의 독자성을 표

출하는 심벌로 활용

- 등록문화재와 주변에 있는 지정문화재 및 문화시설 등을 연계시켜 지역문화를 소개하는 문화관광루트 또는 문화관광지구를 설정, 지역 활성화 도모
- 등록문화재를 특산물판매장, 공방, 전시장 등으로 개수하여 지역산업 진흥에 이바지
- 등록문화재를 지역주민을 위한 마을회관, 예식장, 박물관 등으로 개수하여 지역주민의 문화공간으로 활용

1.2 현황 및 문제점

(1) 유형문화재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의 유형문화재 지정 현황

- 충북의 유형문화재의 분포를 살펴보면 제천, 단양, 충주 등 북부권에 많은 유형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제천시의 경우, ‘유적건조물’에서 ‘주거생활’ 분야의 관련 문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
 - 단양군의 경우, ‘기록유산’에서 ‘전적류’ 및 ‘문서류’ 분야의 관련 문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충주시의 경우, ‘유적건조물’에서 ‘종교신앙’ 분야의 관련 문화재가, ‘유적’에서 ‘불교조각’ 분야 관련 문화재가 높은 비중을 차지
- 중부권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문화재가 고루 산재하고 있음
 - 괴산군의 경우, 우암 송시열과 관련한 주자학적 문화재 전승
 - 청주시의 경우, 국보·보물과 도지정 유형문화재가 균등한 비중 차지
 - 청원군의 경우, 전적류 분야의 관련 문화재가 높은 비중 차지
- 남부권에서는 보은군 법주사의 영향으로 종교신앙 분야 관련 문화재가 높은 비중 차지
 - 도지정유형문화재의 유적건조물(종교신앙과 교육문화)이 높은 비중을 차지

□ 충북의 유형문화재 활용 문제점

- 관리소홀로 인한 문화재 훼손 및 방치
 - 문화재 지정이후의 관리 소홀로 인한 문화재 방치사례 증가
 - 유적건조물의 경우, 풍화와 부식은 물론 기후온난화, 대기오염 등으로 퇴락·훼손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보존환경의 전반적 악화로 인해 보수정비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추세
 - 목조문화재 및 석조문화재의 경우 충해, 부식, 화재, 풍화 등으로 인한 취약성과 보존의 어려움이 상존
- 지속적인 발굴 미비
 - 충북 유형문화재의 경우, 고도(古都)를 제외하면, 전국 평균에 근접하고 있는 수치
 - 그러나 하위유형으로서의 유물의 경우 지속적인 발굴의 미비로 사장되거나 소실되는 경우가 있음
- 부정확한 문화재 안내 및 문화재명의 단일화 미흡
 - 전문가의 고증을 거치지 않은 채 문화재 설명문 및 관광 안내판을 제작하여 일부 오류가 발생
 - 유관 홈페이지 내 유형문화재의 자료 명칭이 통일되어 있지 않음 (예 : 충청도청과 문화재청 홈페이지의 동일문화재명의 다른 표기)
 - 최근 지정된 충북 시·군별 유형문화재 자료들의 홈페이지 미등재 (예 : 제천의 송조표전총류, 음성의 보현암석조관음보살좌상 등)
- 미지정 문화재 현황 파악 미비
 - 서원, 정자, 재실 등 개인이나 문중이 관리하는 미지정문화재의 경우 방치로 인한 훼손이 심각함
 - 도 차원의 관리 및 현황파악 부재
- 다수 분포 문화재를 통한 지역이미지 활용 미흡
 - 특정지역에 유형문화재가 집중되어 있으나, 각 지자체에서 해당 문화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 단양군은 고구려문화유산으로, 충주시는 중원문화유산으로, 보은군은 불교문화유산으로 지역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미흡
 - 고인쇄문화유적, 선사문화유적, 산성관방유적 등도 지역적 특성과 연계 부족

(2) 무형문화재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의 무형문화재 지정 현황

- 충북의 무형문화재 지정현황은 다음과 같음
 - 옥천군의 경우, 도지정 무형문화재 예비 지정 종목이 다수 있음
 - 괴산, 증평군은 미지정

<표 II-2-2> 충북 무형문화재 현황(2008.3)

구분		유형	지정 문화재
권역	지역		
북부권	제천	도지정 무형문화재	오티별신제
	단양	도지정 무형문화재	사기장
	충주	중요 무형문화재	택견
		도지정 무형문화재	청명주, 중원마수리농요, 대장간 야장
중부권	음성	도지정 무형문화재	소목장
	진천	중요 무형문화재	주철장
		도지정 무형문화재	진천용몽리농요
	청주	중요 무형문화재	금속활자장
		도지정 무형문화재	청주농악, 배첩장, 단청장, 궁시장
	청원	도지정 무형문화재	청원신선주, 옹기장
남부권	보은	도지정 무형문화재	송로주, 야장
	영동	도지정 무형문화재	영동설계리농요, 내포제 시조창

□ 충북의 무형문화재 활용 문제점

- 무형 전통문화자원 발굴 미진
 - 무형문화재는 전국 평균에 못 미치고 있고, 무형문화재를 기준으로 볼 때 충남·대전권에 비해 무형의 전통문화자원 발굴이 미진함

- 전국적으로 국가지정 무형문화재 103건, 광역시도지정 무형문화재 221건에 비해, 충북의 경우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3건, 도지정 17건에 불과
-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 확보와 이미지 강화는 유형문화재보다 무형문화재에 더 큰 영향을 받지만 충북의 경우 무형문화재 회소지역으로 평가
- 도 차원에서 무형문화재를 지정하고 관리하는 실천이 오래되지 않았음
- 무형문화재 지정에 있어 지역적 편차 발생
 - 무형문화재를 지정함에 있어 지역적 안배는 물론 역사·문화적 환경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았음
 - 음성의 경우 소목장은 2006년도에 들어서 지정되었고, 옥천, 증평, 괴산지역에서는 무형문화재가 한 종목도 지정되지 않았음
- 무형문화재 전승 관련 지원 및 연구 부족
 - 일부 종목의 경우, 기·예능 보유자의 고령화에 따른 전수교육의 침체와 생계유지의 어려움으로 인한 전수생의 입문 기피 현상이 나타남
 - 전수기반이 취약한 종목의 기·예능 단절 위기 등의 문제가 제기
 - 제도적 개선과 특별 정책적 지원이 필요. 그러나 문화행정의 인식이 제한적이고 관련 전문가의 적극적인 연구가 부족
 - 지역별, 부문별 무형문화재 발굴 및 지정·확대 노력이 필요
- 가치 인식과 활용 미흡
 - ‘택견’과 ‘금속활자장’이 충북의 예능종목과 기능종목을 대표하고 나아가 충북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듯이, 무형문화재의 활용을 위해서 전통문화에 대한 총체적 연구와 함께 합리적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 수요층의 확산 없이 무형문화재의 계승과 활용을 기대할 수 없으나, 수요층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실정

(3) 도내 성곽의 분포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의 성곽 분포 현황

- 충북지역은 삼국시대부터 중원지방과 한강유역을 확보하려는 삼국의 각축장이 되면서 산성과 성곽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음
- 군사적인 방어시설을 의미하는 성곽은 고대부터 존재하였으나 삼국시대부터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산성의 축조형식이 크게 발달하였고, 이러한 성곽의 축조는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내려옴
- 현재 충청북도는 사적으로 지정된 것만 보더라도 상당산성, 삼년산성, 온달산성, 적성, 장미산성, 미륵산성, 정북동 토성 등이 있고 그 외에 기념물로 지정된 충주산성, 덕주산성, 대모산성, 망월산성 등 단일 유적으로는 가장 많은 수가 존재함
- 충북지역의 성곽분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표 II-2-3> 충북의 성곽분포 현황

권역	분포지역	성곽명
북부권	충주시	충주산성, 충주읍성, 탄금대토성, 장미산성, 보련산성, 한훤령산성
	제천시	덕주산성, 와룡산성, 망월산성, 까치산성, 성산성, 감악산성
	단양군	온달산성, 적성산성, 죽령산성, 독락산성, 공문성
중부권	음성군	수정산성, 망이산성, 삼생리산성
	청주시	상당산성, 우암산성, 청주읍성, 정북동토성, 부모산성
	청원군	구라산성, 지산성, 동림산성, 복두산성, 구룡산성, 양성산성, 낭성산성, 낭비성
	괴산군	이성산성, 회양산성, 미륵산성
	진천군	대모산성, 도당산성, 태령산성, 만뢰산성, 두타산성
남부권	보은군	삼년산성, 매곡산성, 호점산성, 성미산성(관기산성), 백현산성, 함림산성, 주성산성
	옥천군	서산성, 삼성산성, 환산성, 이백리산성, 노고산성, 굴산성, 저점산성, 성치산성, 마성산성
	영동군	영동읍성, 황간읍성

자료 : 충청북도, '충북의 성곽을 찾아서', 2000, 재구성

□ 도내 성곽 활용의 문제점

- 충북은 역사적, 지리적 특성으로 인하여 타지역보다 많은 성곽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산성의 경우는 삼국의 격전지답게 삼국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산성들이 다수 분포되어 있음
- 그러나 많은 성곽 및 산성이 방치되고 있어 그 훼손이 심각한 상태임. 또한 원형복원 및 정비를 위해 많은 고증과 비용이 발생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보존에 한계가 있음
- 최근 시대별 대표적인 특징을 가진 산성군을 하나로 묶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고자 하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음
- 비단 이러한 대표산성뿐만 아니라 유형의 문화유산으로서 최고의 가치를 가지는 성곽 및 산성의 복원과 보존이 시급한 시점임

(4) 전시시설 현황 및 문제점

□ 충북의 전시시설 현황

- 충북 지역의 특성을 살린 전시관 및 박물관이 지역 곳곳에 위치하고 있음
 - 영동군의 경우, 전문박물관으로서 '난계국악박물관'이, 전시관으로서 '영동향토민속자료전시관'이 운영되고 있음
 - 제천시의 경우, 전문박물관으로서 '지적박물관'이, 전시관으로서 청풍문화재단지 내 '제천유물전시관', '제천의병전시관', '능강숫대문화공간' 등이, 과학관으로서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이 운영되고 있음
 - 단양군의 경우, 박물관으로 '수양개선사유적박물관'이, 전시관으로서 '광공업전시관', '방곡도예전시관', '공예전시관', '온달전시관' 등이 운영되고 있음
 - 옥천군의 경우, 전시관으로 '옥천향토자료전시관'이, 기념관으로서 '정지용문학관'이, 민속관으로서 '춘추민속관' 및 '덕암민속박물관'이 운영되고 있음
 - 청주, 청원의 경우, 대학 및 특수 테마 박물관이 이들 시설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표 II-2-4> 충북 전시시설 현황(2008.3)

구분		유형	전시시설	
권역	지역			
북부권	제천	전문박물관	지적박물관	
		전시관	제천유물전시관, 제천의병전시관, 능강숫대문화공간	
		과학관	별새꽃돌자연탐사과학관	
	단양	박물관	수양개선사유적박물관	
		전시관	광공업전시관, 방곡도예전시관, 공예전시관, 온달전시관	
	충주	종합박물관	충주박물관	
		전문박물관	조동리선사유적박물관	
		전시관	남한강수석전시관, 슬박물관리퀴리움	
		과학관	사과과학관	
	중부권	음성	전문박물관	세연철박물관, 음성기록역사관
			전시관	음성향토민속자료전시관, 매괴전시관
			기념관	감우재전성기념관
괴산		전시관	괴산향토민속자료전시관, 괴산짚풀공예전시관	
		공예관	조령민속공예관	
증평		전문박물관	증평지역박물관	
		전시장	증평인삼바이오센터	
		전시관	증평향토자료전시관	
진천		전문박물관	진천중박물관	
		사료관	한독의약사료관	
		전시관	진천향토민속자료전시관, 농다리전시관	
청주		종합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국립청주박물관	
		전문박물관	청주교인쇄박물관, 청주옹기박물관, 청주공예관	
		미술관	신미술관	
		전시관	백제유물전시관	
		홍보관	청주공항직지홍보관	
		교육관	충북교육박물관	
청원		종합박물관	충청대학박물관, 교원대박물관	
		전문박물관	잠사문화박물관, 공군사관학교박물관	
		미술관	운보의집	
		자료관	단재교육자료관	
	전시관	청원문화유물전시관		
	과학관	농업과학관		
	민속관	청원예뿌리민속박물관		
남부권	옥천	전시관	옥천향토자료전시관	
		기념관	정지용문학관	
		민속관	춘추민속관, 덕암민속박물관	
	보은	전문박물관	비림박물관	
		전시관	보은향토민속자료전시관	
	영동	전문박물관	난계국악박물관	
		전시관	영동향토민속자료전시관	

□ 도내 전시시설의 문제점

- 지역적 편중 심화
 - 충북 시·군별 전시시설은 전국 평균에서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며 박물관 및 미술관을 전혀 보유하지 못한 지자체도 있음
 - 또한, 사립박물관이 전체의 약30%를 차지하고 있으며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문화적 토대와 정체성 고려가 없는 곳에 기관 중심의 박물관 건립으로 인지도 감소 및 지역적 정체감 형성의 모티브 약화
- 전시공간 및 전시물의 스토리텔링 부재
 - 박물관의 경우, 국·공립박물관을 포함하여 전시공간이 역사적인 시대 순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 중 최고 수준의 것들은 대부분 중앙에 전시되어 있으며 충북의 박물관에는 하위유물 및 유물의 복제품이 전시됨
- 체험프로그램 부재
 - 소장유물의 수와 관계없이 일정 규모의 전시시설과 수장고, 교육시설을 갖춘 곳은 ‘국립청주박물관’, ‘청주고인쇄박물관’, ‘충주박물관’, ‘공군사관학교공군박물관’, ‘충북대학교박물관’ 정도에 불과
 -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기능이 가능한 일정 규모의 시설을 갖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지역의 몇몇에 불과함
- 전문인력 부족
 - 박물관의 경우, 등록박물관은 60%에 불과한 수준. 미등록 박물관의 대부분은 박물관 등록 요건 중 학예사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 미술관의 경우, 최근 지자체를 중심으로 중소규모의 미술관 건립이 붐을 이루고 있지만,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지속적인 운영 면에서는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고 있는 실정
 - 향토자료 전시관의 경우, 전문인력 부족으로 관람객에게 체계적인 안내와 설명이 불가능. 안내 리플렛조차 없는 경우도 있음

(5) 전통지식의 현황 및 문제점

□ 충북 전통지식의 전승 현황

① 구비문학 현황

- 기존 구비문학원형작업으로 『충북민요집』, 『충북민요설화집』 등이 있음
- 지역별 기초 구비문학자료 확보를 위한 집약적 조사가 필요
 - 『강원의 민요 I·II』, 『강원의 설화 I·II·III』 사례 검토

② 민간요법 현황

- 민간에 내려오는 민간요법은 주술적 치료 등을 중심으로 발달하였음. 현황은 다음과 같음

<표 II-2-5> 민간요법 현황

구분	내용	활용 예
단구적 언어주술	치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짧은 말을 선택하여 여러 번 반복하여 외는 주술형태	홍역의 치료
서사적 언어주술	기원의 대상이 되는 객체의 일생이나 노정, 또는 특정사건을 부각하여 외는 주술형태	난산의 치료
운율적 언어주술	일정한 자수를 반복하여 외는 주술형태	동진쟁이 시 활용
무언주술 치료	언어(말)대신 오직 행위를 통해 치료를 기원하는 주술형태	다래끼, 낙태예방
문자주술 치료	언어(말)나 행위 대신 문자를 통해 치료를 기원하는 주술형태. 일종의 부적의 변이형태	다래끼, 초학(학질)의 치료
연희주술 치료	언어와 행위를 섞은 일종의 연기를 통해 치료를 기원하는 주술형태	초학의 치료

③ 대동놀이 현황

○ 대동놀이의 목적별 분류

- 태평, 안녕과 생산을 포함한 신에 대한 기원의례형 놀이
- 순수한 놀이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자연친화형 또는 유희가무형 놀이
- 생업활동 관련 노동력 확보를 위한 단합형 놀이
- 민중적인 의미로서 사회비판적 풍자해학형 놀이

○ 대동놀이의 문화적 의미

- 축제 놀이로서 일상적 가치에 대한 저항과 일탈을 시도
- 공동체 놀이로서 지연공동체에 대한 의무감과 강한 귀속감을 바탕으로 놀이에 참여. 공동체구성원으로서 정체성 확인
- 민속전통예술과 연계된 놀이로서 공동체의 안녕과 풍요 등을 표출

<표 II-2-6> 충북 대동놀이 현황(2008.3)

구분		대동놀이 명	내 용	목적별 분류
권역	지역			
북 부 권	제천	파대놀이	-봉양읍 구곡리·마곡리·삼거리 일대에 전승 -파대는 새를 쫓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의 일종 -2006년 제13회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재현	기원성, 실용형 놀이
	단양	온달성 재밧기	-정월대보름 온달산성에서 부녀자들이 행하던 지신밧기의 일종 -정월 보름날 재를 밧으면서 풍년을 빌고 한해 동안 다리가 튼튼하기를 비는 노래	기원성, 역사형 놀이
	충주	목계 줄다리기	-지역자체 연례행사였던 '골목줄·동네줄·애기 줄'형태의 줄다리기와 외부집단의 참여로 3년 마다 행했던 '큰줄' 형태의 줄다리가 공존 -1984년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서 줄다리를 시연하여 문화공보부장관상 수상	기원성, 단합형 놀이
중 부 권	음성	거북놀이	-7월 보름의 민속놀이로 농신에 대한 기풍행사 (祈豐行事)	기원성, 유희성 놀이
	증평	장뜰 두레놀이	-증평군 남하2리에 전승 -오늘날은 축제의 형태로 바뀌어 전승 -2003년 충북민속예술경연대회 대상 수상	자연친화성, 유희성 놀이
	진천	소놀이	-음성지역 거북놀이의 변이형 -연행의 시기, 목적, 방식이 거북놀이와 유사	기원성, 유희성 놀이
	청원	시동리 물다르기	-청원군 현도면 시동리에 전승 -'물다르기'는 '물빼앗기'의 충청도 방언 -마을의 풍요와 발전이 샘물에 있다는 믿음에서 인근 마을과 물을 빼앗는 집단놀이 -제4회 충북민속예술제 대상 수상	기원성, 단합형 놀이
남 부 권	보은	속리산 탑돌이	-속리산 법주사 별상전을 돌며 행하는 민속놀이 -부처님의 공덕을 찬송하고 공양하고 기원함으 로써 일신(一身)의 제도(濟度)는 물론 국태민 안과 조국융성을 기원	기원형 놀이
	영동	너리기 편지기	-여아가무유희로 역동적이고 생산적인 민속놀이 -여성신체단련과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는 집단 성 놀이 -너리기와 편지기는 물을 나르는 대야의 일종	신체단련형 놀이

□ 도내 전통지식의 활용 문제점

① 구비문학 활용 문제점

- 기초자료 부족
 - 구비전승의 보존을 위해 총괄조사 필요
- 지역별 문화산업을 위해 구비문학원형 작업 선행 필요
 - 『강원의 민요 I·II』, 『강원의 설화 I·II·III』 사례와 같이 무형문화재로 총괄조사가 시급함
- 충북 시도별 민요·설화 조사자료집 간행 및 활용 방안 제시
 - 각 시군별 활용 제시, 향토교육 연계, 캐릭터 등 스토리텔링 작업 제시

② 민간요법 활용 문제점

- 민간요법의 단절
 - 과학의 발달 및 의학의 보급으로 인해 민간요법이 급속도로 단절
 - 민간요법의 전승자인 고노들의 사망
- 민간요법의 체계적 조사·정리 부재
 - 단위 주제로서의 체계적인 조사 및 정리 작업이 부재
 - 민간요법을 조사 및 정리할 수 있는 전문 인력도 부재
 - 민간요법을 ‘단순한 주술이나 미신’으로 치부하는 인식이 만연한 것도 악재로 작용
 - 대전, 충남에 비해 이 방면의 체계화가 전무함

③ 대동놀이 활용 문제점

- 대동놀이 문화재 미지정 및 활용의 미비
 - 충북 민속예술경연대회 등의 특정 행사용으로 발굴과 시연이 되고 있어 지속적인 전승기반 마련하지 못함
 - 시군별 조사와 발굴 작업이 부재하며 보존과 창작 활용의 이원화가 되고 있음
 - 전수공간 등 기반시설의 부족과 정책지원제도의 부재

2. 종합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2.1 종합분석(SW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곳곳에 활용할 수 있는 전통문화 자산 보유 · 민속문화의 활성화와 주변 시설의 활용 가능성 · 뚜렷한 정체성을 지닌 문화유산이 풍부함 · 삼국문화를 아우르는 독특한 문화유산의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문화의 역사성·정체성 미약 · 전통문화부문의 전문인력 부족 · 산학연 연계의 문화재 활용실천이 부족함 · 지역내 문화재지정관리 미흡으로 소멸 위기 종목 다수
강 점	약 점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근 여가시간 확대에 의한 전통문화 수요 증대 ·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재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 · 전통문화와 맞물려 덜 훼손된 자원의 잠재력 · 국내 문화유산에 대한 국내외적 인식과 관심의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의 산업화 확산에 따른 전통문화부문의 위축 · 접근력 확산으로 대도시의 흡인력 강화 · 문화재관리소홀에 따른 훼손우려 상존 · 전통문화의 소외로 인한 전승 및 발전 저하

2.2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살아 숨쉬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유/무형 문화재의 보존과 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형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와 스토리텔링 · 무형문화재의 기록보존과 영상물 제작 · 남한강유역의 문화자원 발굴 · 산성의 원형 복원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전통문화의 현대적 의미계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체험을 위한 역사문화마을 조성 · 호서가람의 템플스테이 활성화 · 우암학 재조명을 통한 문화자원화 · 구비문학 자료조사와 활용에 대한 연구

3. 세부추진사업

3.1 유형문화재의 유형별 분류와 스토리텔링

사업목표

- 유형문화재의 시대적 용도 및 전승 형태를 준거로 유형별 분류 시도
- 지역별 전승 현황 확인 및 유형별 연계 양상 추적을 통한 스토리텔링 작업

(1) 추진 배경(필요성)

- 유형문화재에 대한 개별적 차원의 접근은 유형문화재의 활용 차원에서 더 이상 의미가 없음
- 유형문화재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그 연계 양상을 추적할 때, 보다 풍부한 이야기 원천소스를 개발할 수 있음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80백만원
- 사업내용
 - 도내 유형문화재의 콘텍스트 수집 및 정리
 - 당대 용도 및 전승 형태를 기준으로 유형별 분류 작업
 - 보편성, 특수성, 다양성이 내재되어 있는 유형문화재군 선정
 - 선정 유형문화재군과 관련한 콘텍스트의 스토리텔링 작업
 - 스토리텔링과 문화산업의 접목

(3) 추진 계획

- 2009년 1월 : 추진계획수립
- 2009년 3월 : 관련자료 수집 및 DB 구축

- 2010년 : 문화원형으로서 가치 있는 유형문화재군 선정 및 스토리텔링 작업
- 2011년 : 지역문화콘텐츠 개발

(4) 기대 효과

- 개별 유형문화재 및 유형별 유형문화재군의 고유 정보 확인
- 고유 정보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선양
- 스토리텔링의 독자성 확보를 통한 지역문화콘텐츠 창출
- 시군별 향토전자대전 활용 연계 및 사이버 서비스 제공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80	20	30	30	-	-
국 비	-	-	-	-	-	-
지방비	80	20	30	30	-	-

3.2 무형문화재의 기록보존과 영상물 제작

사업목표

- 무형문화재의 가치 인식과 통합형 DB 구축하여 기록정보의 표준화 체계화 추진
- 텍스트 및 관련 콘텍스트를 포괄하는 무형문화재의 아카이브 구축을 토대로 영상물 제작

(1) 추진 배경(필요성)

- 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공예, 회화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문화재청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장기과제로 ‘문화재기록화 사업’을 전개
- 무형문화재 영상기록, 국가기록유산 포털사이트 구축, 매장문화재 자원조사와 전국문화유산분포지도 GIS 등 통합형 DB를 구축하여 기록정보의 표준화·체계화 추진
- 지역적 차원에서도 무형문화재의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 단순히 무형문화재의 텍스트 조사 및 정리에 머물 것이 아니라, 콘텍스트를 포괄하는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
- 무형문화재의 전통과 가치는 물론 전승의 맥락에서 기능 보유자의 삶과 문화재에 대한 인식까지 포괄하는 구술사 중심의 영상 아카이브 구축이 필요
- 이를 토대로 무형문화재를 재조명하는 영상물 제작이 가능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960백만원
- 사업내용
 - 무형문화재의 텍스트 및 관련 콘텍스트 조사 및 정리
 - 이를 토대로 영상물 제작 및 파생콘텐츠 창출

(3) 추진 계획

- 2009년 : 무형문화재의 텍스트 및 관련 콘텍스트 조사 및 정리
- 2010년 : 영상물 제작
- 2011년 : 영상물 계속 제작 및 파생콘텐츠 창출

(4) 기대 효과

-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한 가치의 인식 재고
- 무형문화재에 대한 지역적 관심 증폭
- 문화산업의 접목을 통한 파생콘텐츠 창출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960	320	320	320	-	-
국비	-	-	-	-	-	-
지방비	960	320	320	320	-	-

3.3 남한강유역의 문화자원 발굴

사업목표

- 남한강유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문화자원, 특히 고구려 관련 문화유적 등의 문화자원을 발굴하여 출판, 영상, 연극 등의 문화산업콘텐츠로 재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남한강유역은 고구려 역사와 이야기의 메카. 충청북도는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지역·문화적 관점에서 고구려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필요가 있음
- 남한강유역권에는 온달산성, 온달동굴, 태장이묘, 미륵사지 공기돌, 고구려비, 방산탑, 장락탑 등 유형의 고구려 문화유산은 물론 각종 전설, 설화 및 언어전승 등 유·무형의 고구려 문화유산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음
- 또한 남한강 유역은 삼국의 접경지역으로 삼국의 다양한 문화적 유산들도 풍부하여 역사적 문화콘텐츠가 풍부하게 남아 있어 문화산업과의 접목 가능한 다양성까지 지니고 있음
- 충청북도 및 단양군에서는 지속적으로 이러한 역사적 콘텐츠를 원천자산으로하여 각종 미디어콘텐츠를 창출해야 함
- 기본적으로 출판, 영상, 연극 등의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 이를 발판으로 삼아 파생콘텐츠로서 문화산업화 가능성 매우 높음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0년
- 투자계획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남한강 유역의 역사 관련 콘텐츠 수집 및 재조사
 - 역사 관련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작업
 - 역사 관련 콘텐츠의 미디어콘텐츠 창출

(3) 추진 계획

- 2009년 : 고구려 역사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재조사. 관련 자료의 연구 성과 점검
- 2010년 : 고구려 역사관련 콘텐츠의 스토리텔링 공모. 관련 콘텐츠의 미디어콘텐츠 창출 및 파생콘텐츠 창출

(4) 기대 효과

- 고구려 역사문화 콘텐츠의 문화산업화를 통해 중국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책 마련
- 남한강 유역의 역사와 문화 선양
- 문화산업과 연계한 축제 및 관광 활성화 유도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0	20	80	-	-	-
국비	-	-	-	-	-	-
지방비	100	20	80	-	-	-

3.4 산성의 원형 복원 및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목표

- 유형문화유산의 보고지역인 충북의 산성유산을 원형 복원하고 정비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함

(1) 추진 배경(필요성)

- 중원문화권 문화유적의 핵심인 산성들을 조사하여 각 역사시대별 대표적인 산성들을 선정·연구함
- 대표적인 산성들에 대한 학술연구를 통해 원형을 복원 및 보전하고 이를 기반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를 추진함
- 충북지역의 대표적인 산성군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홍보를 통해 지역민의 자긍심과 충북 지역의 역사문화적 수준의 향상을 드높임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5,000백만원
- 사업내용
 - 충북지역 산성유산의 원형복원·보전 및 정비
 - 대표 산성군에 대한 대대적인 학술조사 및 세미나 개최
 -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자료 확보 및 체계적인 홍보계획 수립
 - 가칭 '충북지역 산성군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결성
 - 한국유네스코에 등재 신청 및 홍보활동

(3) 추진 계획

- 2009년 : 정밀학술조사 실시 및 국내·국제 학술대회 개최, 대외홍보 및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 구성
- 2010년 : 등재신청, 국내 성곽관련 특별전 개최 및 종합자료관 건립
- 2011년 : 등재 후 보존·관리 조직 발족 및 안내시설 등 건립

(4) 기대 효과

- 충북지역 산성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통해 우리 민족과 우리문화의 우수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음
- 세계적인 가치 인정에 따른 국제적 지명도 향상으로 현지탐방, 산성축제 등 품격높은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5,000	400	3,000	1,600	-	-
국비	2,000	-	1,000	1,000	-	-
지방비	3,000	400	2,000	600	-	-

3.5 무형문화재 체험을 위한 역사문화마을 조성

사업목표

- 무형문화재가 전승되고 있는 특정 공간을 역사문화마을로 선정
- 무형문화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 제고
- 기존 전수관 활용과 그 연계를 통한 관광자원화

(1) 추진 배경(필요성)

- 무형문화재는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가치가 매우 높음
- 각 지자체는 새로운 무형문화재를 발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기존 시군 전수관 시설을 활용하고 이와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 필요
- 나아가 이를 직접 체험함으로써 무형문화재에 대한 가치 인식을 제고하여 지역문화 선양을 유도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시·군별 무형문화재 장려정책 마련 :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시설 관리(예, 무형문화재 영동 설계리 농요전수관, 충주 마수리 농요전수관, 진천 용몽리 농요전수관 등 활용)
 - 무형문화재 지원 인력 확보 : 해당 무형문화재 전수자, 해설사 등 배치
 - 무형문화재 정체성 확보 : 무형문화재 연구 성과와 결과물 정리
 - 무형문화재 홍보 전략 구상 : 홈페이지, 광고, 지역축제, 시연 등을 통한 지역 무형문화재 알리기, 주말 상설 공연장, 무형문화재 체험 학습관 만들기 등

- 무형문화재 탐사 '1박 2일' 프로그램 개발, 목계 역사문화마을과 진천 역사문화마을 참조

(3) 추진 계획

- 2009년 : 무형문화재 체험 단지 권역 설정
- 2010년 : 무형문화재 전수관 등 시설 관리. 해당 무형문화재 전수자 및 해설사 배치. 무형문화재 연구 성과 및 결과물 정리
- 2011년 : 홈페이지, 광고, 지역축제, 시연 등을 통한 지역문화재 알리기. 주말 상설 공연장, 무형문화재 체험 학습관 조성 등

(4) 기대 효과

- 음악, 무용, 공예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에 대한 가치의 인식 제고
- 각 지역의 문화경쟁력 상승
- 문화산업의 접목을 통한 파생콘텐츠 창출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00	100	450	450	-	-
국비	500	-	250	250	-	-
지방비	500	100	200	200	-	-

3.6 호서가람의 템플스테이 활성화

사업목표

- 충북지역 명찰을 대상으로 한 산사체험으로서 종교·문화적 향유, 역사교육, 휴식 등을 고려한 '템플 스테이' 도입 추진
- '템플 스테이' 도입을 통해 범주사와 구인사 등 지역 명찰의 역사적 전통과 다양한 형태의 문화유산을 선양

(1) 추진 배경(필요성)

- 충북에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5교구 본사인 범주사와 대한불교 천태종 총본산인 구인사 등의 명찰이 있음. 이들 명찰 외에 수많은 가람들이 충북에 위치하고 있음
- 삶의 질 향상에 따른 관광패턴의 변화는 지역 명찰에 대한 단순한 종교적 참배로 그치지 않고 전국적으로 '템플 스테이'라는 형태의 체험 관광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계종을 중심으로 한 '템플 스테이'는 국내외 관광객들의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하나의 문화체험 아이템으로 자리 잡고 있음
- 충북지역은 각 지역 내 수많은 가람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통한 '템플 스테이'를 추진하고 주변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상품을 개발하여 관광사업화를 증대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함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0년
- 투자계획 : 100백만원
- 사업내용
 - 명찰과 관련한 전문 문화해설사 양성
 - 지역 내 각 가람의 템플스테이 추진 : 각 종단과 협의

(3) 추진 계획

- 2009년 : 명찰과 관련한 전문 문화해설사 양성교육 실시
- 2010년 : 명찰의 템플스테이 활성화 시범추진

(4) 기대 효과

- 지역 명찰의 역사적 전통과 문화유산 선양
- 자연친화형, 체험관람콘텐츠 창출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100	40	60	-	-	-
국 비	-	-	-	-	-	-
지방비	100	40	60	-	-	-

3.7 우암학 재조명을 통한 문화자원화

사업목표

- 우암 송시열의 유교 성리학(우암학)을 재조명함으로써 정신문화 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정신문화콘텐츠 개발 및 육성을 통한 지역의 신 성장 동력 창출
- 유교 성리학의 현대화·대중화를 통한 문화관광자원화

(1) 추진 배경(필요성)

- 충북은 기호를 통틀어 가장 권위 있는 노론계 서원인 ‘화양서원’을 중심으로 지배적인 유교문화를 형성
- 이후 이전의 권위 내지 영향력은 실추되지만 그 정신만은 한말의 구국운동에 이르기까지 면면히 계승
- 그러나 송시열과 관련한 화양구곡, 화양서원, 암서재, 첨성대 등의 유형문화유산조차 보존 차원에서만 관리되고 있음
- 최근 이황, 이이와 더불어 송시열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데 의견이 수렴. 송시열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 추세에 있음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2년
- 투자계획 : 300백만원
- 사업내용
 - 양반문화콘텐츠 창출 : 복식, 음식, 체험콘텐츠 등
 - 성리학콘텐츠 창출 : 교육콘텐츠
 - 우암박물관 조성

(3) 추진 계획

- 2009년 : 우암 관련 연구 성과물 분석 및 우암 유적 정비
- 2010년 : 양반문화콘텐츠 창출
- 2011년 : 성리학콘텐츠 창출
- 2012년 : 우암박물관 조성

(4) 기대 효과

- 유교 성리학 정신문화의 중심지로서 충북의 이미지 제고
- 유교 성리학(우암학)의 정신문화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우리나라 전통 정신문화 유산의 창조적 계승과 이를 통한 문화자원화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300	50	50	100	100	-
국비	200	-	-	100	100	-
지방비	100	50	50	-	-	-

3.8 구비문학 자료조사와 활용에 대한 연구

사업목표

- 구비문학 발굴과 함께 육성할 수 있는 이론과 토대 마련
- 점차 사라져가는 구비문학의 원류를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할 필요성이 시급히 제기됨

(1) 추진 배경(필요성)

- 『충북민요집』, 『충북민요설화집』의 한계로 구비전승의 보존을 위해 총괄조사 필요
- 충북 시도별 민요·설화 조사자료집 간행 및 활용 방안 마련
- 지역별 문화산업을 위해 구비문학원형 작업 선행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1년
- 투자계획 : 200백만원
- 사업내용
 - 구비문학자료, 연구활용 방안에 대한 이론 확충
 - 민요 등의 발굴과 함께 예능보유자 발굴과 지원

(3) 추진 계획

- 2009년 : 기존 구비문학문헌조사, 구비문학자료 1권 간행
- 2010년 : 구비문학자료 1권, 연구활용방안 1권 간행
- 2011년 : 구비문학자료 2권, 연구활용방안 2권 간행

(4) 기대 효과

- 구비문학자료 3권 간행
- 연구활용방안 2권 간행
- 시군별 원형 활용의 이미지 특성 제시
- 민요 등의 예능보유자 발굴과 지원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계	200	50	50	100	-	-
국 비	-	-	-	-	-	-
지방비	200	50	50	100	-	-

제3장 특성화된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1. 여건 변화 및 현황

1.1 여건 변화

(1) 문화예술의 창조적 가치에 대한 인식 변화

- 2000년 이후 전세계적 차원에서 문화 기반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 진행
 - 1980년대의 노동력과 가격 중심의 제조업 기반 경제에서 1990년대 기술과 품질 중심의 지식 기반 경제를 거쳐 ‘기술, 감성, 이미지, 체험’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 기반 경제로 이동하는 추세
 - 눈에 보이지 않는 지식 자산과 혁신 능력을 바탕으로 한 창조적 능력이 노동력의 핵심적 구성 요소로 인식되기 시작
- 정부에서는 문화로 부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 수립을 위해 ‘문화강국(C-KOREA) 2010’ 발표
 - ‘문화강국(C-KOREA) 2010’은 3C, 즉 창의성(Creativity), 문화(Culture), 콘텐츠(Contents)를 바탕으로 하여 문화·관광·레저스포츠의 다양한 콘텐츠를 산업적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소득 3만불 시대를 조기에 견인하는 중장기 비전과 전략 확보
- 한국문화예술위(ARKO, Arts Council Korea)는 “문화와 예술이야말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두를 선도하는 창조적 가치”라며 ‘활기찬 예술 현장, 삶을 채우는 예술, 미래를 여는 예술’을 핵심 가치로 하는 ‘아르코 비전 2010’ 발표
 - 한국문화예술위는 비전으로 “예술을 통한 창의적 사회, 성숙한 사회, 열린사회 구현”을 제시하고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예술의 국제교류협력 증진,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 예술의 생활화,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을 주요 전략 목표로 설정

- 창의성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과 산업의 접목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을 이루는 것이 새로운 세기의 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정착
 - 문화예술이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모두를 선도하여 국가 발전의 동력이 되는 창조적 가치라는 인식 확산

(2) 새로운 문화예술 창조 전략의 필요성 대두

- 일반시민은 물론이고 경제 양극화로 문화예술에서 소외되었던 계층의 문화예술 창조욕구 신장 전망
 - 주 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여가시간이 확대되면서 문화예술 창조 욕구의 증대 예상
 -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계층에 관계없이 기본적 권리의 일종인 문화적 권리 중에서 ‘창작권’의 보장에 대한 요구 제기
- 사회적 계층의 다원화에 따른 다양한 문화예술의 창조 욕구 증대와 확산
 -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민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문화적 다양성(Cultural Diversity)에 바탕을 둔 문화예술 창작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고령층과 성적 소수자, 장애우 등 사회적 소수자의 자생적 문화예술 창작 욕구가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
- 정보기술의 발전에 기반을 둔 예술 창작 방법의 변화로 새로운 문화예술 분야의 등장
 -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창작기술의 일반화와 대중화로 일반시민이 단순한 문화예술 소비자가 아니라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생비자(Prosumer)로 변화
 - 고급예술과 대중예술의 경계와 장르간의 경계가 약화되면서 문화예술 창작의 장르 융합과 탈장르 현상 대두

(3) 지역 문화예술의 정체성 강화 요구 증대

- 세계화와 지방화의 동시적 추진에 따라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에 기초한 독자적 문화예술 발전전략이 모색되어야 차별화된 발전이 가능
 - 발굴과 재정비 과정을 거친 지역의 문화예술 유산을 바탕으로 독자적 문화권을 창조적으로 형성하고 발전시킬 필요성 고조

<표 II-3-1> 충북지역 정체성과 관련된 문화예술 유산목록

유산 테마	지역별 유산 내용	창조적 발전 방향
선사 문화	단양 수양개 유적 / 제천 점말동굴, 의림지 옥천 청동기 고인돌 유적 청원 두루봉 동굴	원시예술의 현대적 계승
통일 문화	충주 증원 고구려비, 장미산성, 중앙탑, 하 늘재 단양 온달산성, 적성산성, 적성비 진천 김유신 탄생지, 길상사, 화랑벌, 보탑사	우리시대 남북통일과 연계한 통일 문화 정립
유교 문화	청주-보은-회인 등 각 지역 향교 보은 상인서원, 괴산 화양동서원 등 각 지 역 서원 괴산 연풍 김홍도 및 단양 8경 관련 유교 설화 단양 이황 유적 / 음성 권근 유적 / 진천 정송강사	선비문화 및 문인예술 의 발굴과 재창조
불교 문화	보은 속리산, 범주사 중심 각 지역 조계종 사찰 단양 구인사 천태종 청주 직지 고인쇄 박물관	불교사상 및 금속활자 문화의 재조명

유산 테마	지역별 유산 내용	창조적 발전 방향
기독교 문화	천주교 연풍 성지, 배론 성지, 감곡 성당 청주-진천-광혜원 등 성공회 성당 근대에 건립된 각 지역의 교회 건축	근대 기독교의 역사적, 교육적 의미 파악
동학 문화	청원 손병희 탄생지 / 보은 장대리 옥천 동학 유적	동학사상의 현대적 재 해석
근현대 문학	옥천 정지용 / 보은 오장환 / 영동 권구현 괴산 홍명희 / 음성 이무영 / 진천 조명희, 조벽암 충주 홍구범, 이흠, 권태웅, 정호승 청원 신채호, 김기진	전국 제일의 근현대 문학유산 계승과 발전
음식 문화	영동-옥천 포도, 생선국수 충주 사과/ 음성 고추, 수박 단양 육쪽 마늘 / 청원 생명쌀, 초정 약수 제천 약초, 정방사 석간수 / 괴산 고추, 찰옥수수 보은 황토 사과, 대추, 속리산 삼파수 진천 청결미, 초평 붕어찜 / 증평 인삼	먹거리 체험 문화활동 의 정리와 새로운 음식 문화의 지속적 창조
설화 문화	이화와 두향 / 다자구야 할미 바보온달과 평강공주 / 박달도령과 금봉 낭자	고유 정서의 파악과 전승
국악 문화	영동 난계 박연 / 충주 우륵과 가야금	
산성 문화	청주 상당산성, 부모산성, 정북동 토성 보은 삼년산성 (상주 견훤산성) 옥천 고리산성 / 음성 망이산성 진천 대모산성 / 충주 장미산성 제천 덕주산성 / 단양 온달산성	전국 유일의 삼국시대 산성 유적을 활용한 고대 전쟁사 및 통일 문화 탐구

자료 : 충청북도,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CHANGE 21', 2004

- 국제화의 확대에 의해 글로벌 경쟁력을 지닌 매력적인 문화
상품 개발이 지역발전의 중요한 과제로 부상
- 청주국제공항의 활성화로 증가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사로잡
기 위해 지역의 차세대 문화예술 전문 인력에 대한 창의성 교
육이 필수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의 문화관광 특정 지역 개발방향과 부합하는 창의적 문화상품 개발 필요

<표 II-3-2> 충북 관련 문화관광 특정지역의 개발방향

광역 관광벨트	지역	개발방향
중원문화권	충주·제천·단양지역	중원문화의 발굴·보존과 병행하여 충주호~월악산~소백산을 연계 개발
기타	월악산·소백산·덕유산 주변	여러 도에 걸친 자연환경과 인문자원의 특성을 연계하여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종합관광지로 육성

자료 : 대한민국,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 2005

1.2 현황 및 문제점

(1) 문화예술 창작시설 부족과 지원 시스템 미비

-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시설의 부족에 따른 문화 창작활동의 한계 노출
 - 문화예술 활동의 중심은 창작, 창작을 위한 훈련, 작품의 발표를 위한 공간임에도 여전히 양적 부족 현상이 존재
 - 현대예술은 창작과 향수가 통합되는 추세를 보이기 때문에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을 요구
 - 충북지역은 수도권에 비해 공연시설과 전시시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
 - 도내의 시 지역과 군 지역 간에도 격차 발생, 민간 부문에서는 격차 더욱 증가
 - 도서관은 지자체 소속보다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많아(15개소) 문화예술 활동과는 무관
 - 박물관과 미술관의 경우에는 민간 부문의 비중이 매우 낮아 3%대 유지

<표 II-3-3> 충북지역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공공 도서관	공공 공연장	민간 공연장	영화관	미술 관	화랑	사민 회관	복지 회관	청년 회관	문화원	국악원	전수 회관	박물관	문예 회관	문화 의점
2003	-	20	-	27	2	6	7	45	7	12	3	1	-	-	-
2004	-	13	8	41	3	4	8	40	9	12	1	1	-	-	-
2005	25	14	7	41	5	4	8	40	9	12	1	4	15	7	7

자료 : 충청북도, '충북통계연보', 2006

- 문화예술인의 자유로운 창작을 위한 지원 및 보상 시스템 구축 미비
 - 창작활동의 규제 감소 및 표현의 자유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소외감은 더욱 증가
 - 문화예술인의 사기를 진작하고 창작 환경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지원 정책 필요
 - 현대 문화예술은 창작 과정에서 다양한 예술적 실험을 위해 인력 및 재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
 -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한 제작비 상승 때문에 창작자의 경제적 부담 가중
 - 문화예술의 지형 변화로 인해 제도권과 비제도권, 고급예술과 대중예술 등의 구분은 무의미
 - 이러한 변화에 맞추어 전통적 장르에 대한 지원의 혁신과 새로운 장르에 대한 지원 시스템 필요

<표 II-3-4> 예술인의 창작활동 여건 조사결과

(단위 : %)

창작활동 여건	2000			2003		
	만족	불만족	평균 (5점 만점)	만족	불만족	평균 (5점 만점)
사회적 평가	21.0	34.1	2.76	18.8	43.4	2.66
창작발표 기회	10.9	61.2	2.27	15.6	61.3	2.37
외부의 창작활동 규제	27.9	33.1	2.93	56.3	20.1	3.44
예술인 및 예술활동 지원	3.4	84.8	1.61	1.7	88.0	1.64
예술활동의 경제적 보상	2.2	88.0	1.54	0.9	87.6	1.58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단기 전략계획', 2006

(2) 문화예술 교육체계와 재정상태의 개선 필요

- 삶의 질 향상으로 인해 급증하는 일반시민들의 창작 욕구를 해소할 교육 프로그램의 부족
 - 지역주민의 평일 여가시간은 부족하나, 주5일제 근무의 확산으로 인해 주말 여가시간 급증

<표 II-3-5> 여가시간 규모의 전국평균과 충북지역 비교

(단위 : %)

구분	전국						충북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평일	주말										
0~1시간	10.8	4.0	10.1	1.6	6.3	-	14.1	3.1	6.3	3.1	12.5	-
1~2시간	27.5	8.3	27.2	8.5	31.5	7.5	35.9	10.9	25.0	9.4	39.6	16.7
2~3시간	22.9	10.4	29.3	11.6	33.8	12.5	28.1	17.2	21.9	6.3	20.8	19.8
3~4시간	15.8	12.7	17.3	13.6	14.7	16.8	12.5	17.2	17.2	14.1	10.4	17.7
4~5시간	10.8	15.3	9.6	20.1	6.2	13.1	7.8	18.8	4.7	10.9	10.4	4.2
5시간 초과	12.4	49.5	6.5	44.7	7.6	50.1	1.6	32.8	25.0	56.3	6.3	41.7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년도

-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으로는 시간 부족과 경제적 부담 이외에 프로그램과 관련정보의 부족을 지적
- 문화예술 활동비용 중 최대지출 분야는 책이나 잡지 구입 및 대여에서 영화 관람으로 이동하는 추세
-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충북지역에서는 예술관련 교육 및 강습비가 '문화예술 활동비용 최대 지출분야'에서 차지하는 비중 높음

<표 II-3-6> 문화예술 활동비용 최대지출 분야 비교

(단위 : %)

구분	전국			충북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책/잡지 구입 및 대여	33.9	22.2	19.8	37.5	25.0	25.0
영화 관람	9.9	29.5	38.5	9.4	25.0	20.8
음반/테이프/CD 구입	17.6	10.3	4.5	10.9	15.6	4.2
비디오테이프 구입/대여	9.8	7.5	3.4	15.6	6.3	5.2
예술 관련 교육/강습비	3.5	0.4	0.7	6.3	1.6	3.1
전통예술 관람	1.4	0.5	0.3	1.6	3.1	3.1
각종 전시회 관람	1.1	0.7	0.5	3.1	1.6	1.0
연예 관람	0.8	1.1	1.1	1.6	0.0	1.0
연극 관람	0.8	1.2	1.3	0.0	0.0	2.1
클래식 음악회 관람	0.3	0.4	0.5	0.0	0.0	0.0
무용 관람	0.2	-	0.1	0.0	-	0.0
해당 사항 없음	19.3	26.3	29.3	14.1	21.9	34.4
기타	1.7	-	0.1	3.1	-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년도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한 경험자의 비율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전국적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추세
- 충북의 경우 지역주민들의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가 전국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 이를 통해 충북지역에서는 일반시민들의 문화예술 창작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높다는 것을 증명

<표 II-3-7>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수강 경험

(단위 : %)

구분	전국			충북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있다	25.1	11.5	7.7	29.7	20.3	10.4
없다	74.9	88.5	92.3	70.3	79.7	89.6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의 문제점으로는 충실하지 못한 교육내용과 과도한 수강비용, 다수의 수강인원으로 인한 과밀학급, 단순한 프로그램 내용 등을 지적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강사 재교육, 수강비 지원, 소수정예 학급 편성, 깊이 있는 교육 프로그램 등이 필요

<표 II-3-8> 문화예술 교육시 보완점

(단위 : %)

구분	전국			충북		
	2000	2003	2006	2000	2003	2006
충실한 내용	30.1	24.7	31.9	47.4	0.0	20.0
강사의 전문성 향상	13.3	20.3	18.5	15.8	15.4	0.0
수강비용 인하	19.3	19.9	24.6	5.3	30.8	30.0
시설/환경 개선	8.0	11.7	4.3	5.3	30.8	20.0
프로그램 다양화	10.8	11.7	9.1	0.0	7.7	20.0
체험/ 실사 위주 교육	13.9	8.2	7.8	26.3	0.0	0.0
수강인원 축소	3.6	2.6	1.7	0.0	7.7	10.0
기타/무응답	1.0	0.9	2.2	0.0	7.7	0.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자료 : 문화관광부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향수실태조사', 각 년도

-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자원 부족과 재정 부족
 - 지역 내 대학 수에 비해 신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학과의 상대적 부족과 열악한 교육환경

- 기타 인력양성 교육기관 및 교육 프로그램의 숫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
- 군 지역의 지자체와 문화예술단체 상임 근무자의 인원 및 경험 부족 현상 심각
- 작품 창작 및 발표를 위해서는 기획 및 기술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도 시급
- 이와 같은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분화현상을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 미비
- 기존 예술가에게 창작의 기운을 북돋아 줄 재교육 시스템의 미비
 - 창작 동기 및 지원의 부족으로 문화예술 인력의 현장 진입 후 단기간 내에 이탈 현상 가속화
 -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 연수 프로그램 설치 및 지원 등을 통한 재교육 시스템 마련 시급
 - 지역 소재 대학 등 전문 교육기관과 연계한 재교육 과정의 개설 및 운영 필요
 - 각종 제약으로 인해 교육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문화예술 인을 위한 온라인 교육 시스템의 미비
- 효과적인 인력양성 시스템의 지원을 위한 정보 네트워크 마련 절실
 - 지역 내 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정책 결어
 - 국내외 문화예술 관련 교육 프로그램 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위한 정보센터 설립 필요
 - 장기적으로 정보센터와 각 교육기관의 네트워크를 통괄할 충북 문화재단(가칭) 설립 필요

(3)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를 위한 재원 및 정책 미흡

-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정책 필요
 - 충청북도 문화예술기금의 확대와 문화예술 예산의 점유율 상향 조정 필요
 - 예술경영, 문화마케팅, 펀드 모금 등을 담당할 전문인력 및 시스템 부재

- 지역연고 기업체와 지역문화 발전을 연계하는 기업메세나 제도 확충 필요
- 각종 기부제도의 홍보 강화 및 새로운 기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노력 절실
-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해서는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금만으로는 태부족

<표 II-3-9> 도내 문예진흥기금 지원실적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합계
금액	200	240	240	240	240	240	240	1,640

자료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로 아름다운 세상-한국문화예술위원회 중·단기 전략계획', 2006

-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 및 프로그램의 미비
 - 문화 기반 경제에서는 창의성에 기초를 둔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이 곧 지역경제의 원동력
 - 외부 환경의 변화로 지역 문화예술의 특성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중앙의 문화예술에 의해 지배당할 우려 증대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 단체의 지원을 전담할 전문 공무원의 부재
 - 지역 문화예술계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실태조사 및 체계적 지원방안 강구
 - 유희 문화예술 시설의 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문화예술 단체와 연계 프로그램 마련
 - 구태의연한 나눠먹기식 재정 분배로 인한 재정지원의 비효율성 개선 필요
 -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심의와 평가를 위한 시스템의 미흡
 -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 등 우수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지역 문화예술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순회강연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필요

2. 종합분석 및 전략과제 도출

2.1 종합분석(SWO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문화예술인의 잠재력 · 풍부한 문화예술 유산 · 지방 정부의 문화 관심도 고조 · 민간 문화예술단체의 활동력 · 지역 문화산업의 활성화 경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정부의 장기 비전 결여 · 문화예술 진흥 전담기구 부재 · 문화예술 활동의 지역적 편재성 · 기초지자체 전담인력 부족 · 문화예술 시설 낙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가치의 인식 확산 · 여가시간 확대와 문화예술 수요 증대 · 정보기술 발전과 신예술 경향 탄생 · 중앙정부의 지원정책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요구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구조 변화와 기초 예술 쇠퇴 · 오락산업 성장과 문화 접근성 차단 · 대중문화 탐닉과 감수성의 평준화 · 감각적 문화수용과 진지한 문화 외면 · 재원확보 전망의 불투명

2.2 기본목표 및 추진전략

목표	자유로움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조력 제고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문화예술 창작기반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작센터 및 스튜디오 확충과 개선 • 예술작품 발표 공간 확보 및 기획사업 지원 • 창작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기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 • 예술주체 전문교육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 •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 청소년 및 풀뿌리 창작활동 지원
	문화예술 단체 활성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 메세나운동 지원 및 기업 참여방안 개발

3. 세부추진사업

3.1 창작센터 및 스튜디오 확충과 개선

사업목표

- 문화예술 창작 공간의 확충을 통한 양적 부족 현상 해소
- 창작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활성화 유도

(1) 추진 배경(필요성)

- 현대예술은 창작과 향수가 통합되는 추세여서 복합적 문화예술 공간 필요
- 문화예술 작품의 창작을 위한 전용 공간의 양적 부족 현상이 여전히 존재
- 창작 스튜디오로 전환할 수 있는 폐교, 유휴 시설 등의 방치로 인한 자원 낭비
-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창작 공간 절대적 부족 및 기존 시설의 노후화로 개선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1,000백만원
- 사업내용
 - 유휴 시설, 폐교 등을 활용한 창작 공간 조성과 지원
 - 예술인 마을, 창작 스튜디오 등 기존 창작 공간 운영 지원
 - 시 단위 예술창작 복합센터 확보 및 운영 지원

(3) 추진 계획

- 2009년 : 중기 지방재정 계획 반영
- 2010년 : 중장기 계획 수립, 사업추진 방안 연구, 사업 운영 체계 마련
- 2011 ~ 2012년 : 시범 사업 운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본 사업 운영,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 2018년 : 장기 사업목표 구현, 체계 정착 및 운영

(4) 기대 효과

- 예술가의 창작 활동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 대신에 창작공간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지원의 파급효과 제고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1,000	-	100	120	140	140	500
국비	-	-	-	-	-	-	-
지방비	1,000	-	100	120	140	140	500

3.2 예술작품 발표 공간 확보 및 기획사업 지원

사업목표

- 연극, 무용, 전통예술 전문 창작 집단의 창작 및 발표 공간 확보 및 지원
- 전문 공연 및 전시 시설의 창작 기획사업 지원

(1) 추진 배경(필요성)

- 예술 공급은 과잉 현상을 보이는 데 비해 예술 수요가 이를 따라잡지 못하는 현상으로 인해 예술 창작의 위축
- 예술 창작물의 발표에 필요한 매개 시설의 부족 및 영세화로 인한 예술 발표와 향수의 위축 현상 심화
- 예술 창작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창작-유통-소비 단계의 합리화와 체계화 요구 증대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투자계획 : 817백만원
- 사업내용
 - 작품 창작 발표를 위한 공간의 개발 연구 및 확보
 - 기존 창작 및 발표 공간의 시설 개선 지원
 - 공연 및 전시 시설의 기획사업 지원
 - 소극장, 미술관의 기획력 강화 지원
 - 아트 페어 등 창작 및 유통 활동 지원

(3) 추진 계획

- 2009년 : 중장기 계획 수립, 기존 사업 계속 및 문제점 검토
- 2010년 : 기존 사업 계속 및 개선방안 마련
- 2011년 ~ 2012년 : 기존 사업 운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4) 기대 효과

- 예술창작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발표 및 매개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예술 현장 활성화 도모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17	67	150	150	150	150	150
국비	500	-	100	100	100	100	100
지방비	317	67	50	50	50	50	50

3.3 창작 활성화 사업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

사업목표

- 창작 현장의 새로운 수요를 반영하는 지원 체계 구축
- 장르별 특성을 살린 창작 활성화 사업의 개발

(1) 추진 배경(필요성)

- 모든 예술 활동의 주체인 예술가들이 성장해야 예술적 역량의 제고 가능
- 예술가의 사회적 소외감이 증대되는 현실에서 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정책 필요
- 경제 불안정과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제작비가 상승하여 예술가의 부담 가중
- 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에 맞추어 기존의 전통 장르에 대한 지원을 혁신하고 새로운 장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할 방안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4년
- 투자계획 : 800백만원
- 사업내용
 - 예술가의 예술 창작과 발표에 대한 대폭적인 지원 확충
 - 기존 공모 지원사업의 확충 및 내실화
 - 소외 장르 및 새로운 장르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개발
 - 예술 장르별 창작 활성화를 위한 특화사업 개발

(3) 추진 계획

- 2009년 : 중장기 사업 추진 방안 및 운영체계 수립, 기존 사업 검토 및 지속적 추진
- 2010년~2012년 : 기존 사업 계속,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4) 기대 효과

- 기존 지원 사업을 보다 목표 지향적인 지원체제로 개선하고 장르 특성이 반영된 사업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원의 내실화 달성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800	-	150	150	150	150	200
국비	500	-	100	100	100	100	100
지방비	300	-	50	50	50	50	100

3.4 문화예술 특성화 교육기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사업목표

-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 특성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각종 인력 양성 기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1) 추진 배경(필요성)

- 다수의 지역대학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전공 학과의 부족과 교육 환경이 열악함
- 여가시간의 연장 등으로 인해 확대된 일반 시민들의 창작 욕구를 해소할 교육시설의 확충 및 활성화 필요
- 지역 주민들의 창작에 대한 관심이 전국 평균보다 높지만 과밀 학급이나 프로그램 부실 등의 문제점이 상존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1,000백만원(2009 ~ 2013)
- 사업내용
 - 지역 대학의 문화예술 인력양성을 위한 특성화 시설 및 장비 지원
 - 평생교육원 등 인력양성 기관의 시설 및 환경 개선 지원
 - 각종 문화학교의 활성화를 위한 시설 및 운영 지원

(3) 추진 계획

- 2009년 : 중기 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0 ~ 2012년 : 시범 사업 운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본 사업 운영,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 2018년 : 장기 사업목표 '구현, 체계 정착 및 운영

(4) 기대 효과

- 문화예술 인력양성 기관의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을 통해 지역의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기반 조성에 이바지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1,000	-	200	200	200	200	200
국 비	-	-	-	-	-	-	-
지방비	1,000	-	200	200	200	200	200

3.5 예술주체 전문교육 강화와 지원 체계 구축

사업목표

- 역량 있는 신진 전문 예술인을 발굴하여 예술계의 중추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환경 조성
- 창작 및 기술, 매개 인력의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지원

(1) 추진 배경(필요성)

- 지역대학의 신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학과의 상대적 부족과 열악한 교육 환경
- 지역 내 대학 등 유관 교육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교육정책 결여
- 문화예술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인 일반시민의 창작 및 교육 프로그램 참여 지원 필요
- 새로운 예술조류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및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시급
- 작품 창작 및 발표를 지원하는 기획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부족 현상 심각
- 기획 및 기술 분야 전문인력의 분화현상을 지원하는 교육 시스템 미비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1,4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 대학과 연계한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
 - 신진 문화예술 인력과 신장르, 예술인력에 대한 교육과정 개설 및 운영 지원

- 기획과 기술 인력, 매개 인력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
- 일반 시민의 문화예술 창작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방안 마련

(3) 추진 계획

- 2009년 : 교육지원체계 현황 및 추진 방향 수립
- 2010년 : 신규 사업 실시,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1 ~ 2012년 : 기존 사업 계속,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 2018년 : 장기 사업목표 구현, 체계 정착 및 운영

(4) 기대 효과

- 신진 예술창작 인력과 실험적 예술 창작 인력 및 매개공간의 전문 인력에 대해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 인력의 확충 및 능력 제고에 기여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1,400	-	200	200	300	300	400
국 비	700	-	100	100	150	150	200
지방비	700	-	100	100	150	150	200

3.6 전문인력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업목표

- 지역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창작 역량을 제고할 재교육 연수 프로그램 마련
- 지역 대학 및 전문 기관과 연계한 재교육 과정의 개설 및 운영

(1) 추진 배경(필요성)

- 현장 진입 후 빠르게 이탈하는 신진 문화예술 인력에게 창작 동기 등을 부여할 재교육 절실
- 기성 전문 예술가에게도 새로운 창작의 모티프를 제공해 줄 재교육 시스템 구축 시급
-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문화예술인에게 새로운 예술 창작의 동향과 정보 등을 제공해 줄 필요성 대두
- 수도권 중심의 문화예술연수원 산하 ‘지역문화 예술인력 교육프로그램’이 한계에 봉착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0 ~ 2018년
- 투자계획 : 9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성 문화예술인에 대한 연수 및 세미나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지원
 - 기초 지방자치단체 거주 문화예술인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순회 교육 실시
 - 지역 대학과 연계한 문화예술인 재교육 과정의 개설 및 운영 지원
 - 문화예술연수원 산하 ‘지역 문화예술 인력교육 프로그램’을 대체할 제도적 장치 마련

(3) 추진 계획

- 2010 ~ 2012년 : 중장기 계획 수립 및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 2018년 : 장기 사업목표 구현, 체계 정착 및 운영

(4) 기대 효과

- 지역의 기성 문화예술 전문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교육을 통해 예술창작 활동의 진작에 공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900	-	100	100	100	100	500
국 비	450	-	50	50	50	50	250
지방비	450	-	50	50	50	50	250

3.7 청소년 및 풀뿌리 창작활동 지원

사업목표

- 청소년 및 아마추어 문화예술 창작조직 및 활동에 대한 각종 지원 강화
- 전문 문화예술 창작단체와 청소년 및 아마추어 커뮤니티의 통합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1) 추진 배경(필요성)

-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사회적 창의력이 국가의 중요 성장 동력으로 인정 받고 있는 추세임
- 사회적 창의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적 예술 창작 경험의 축적이 필수적으로 요구됨
- 특정 예술 공간에서 수행되는 감상이나 창작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서서 생활 속의 문화예술 창작을 활성화함으로써 생활환경 자체를 문화 환경으로 바꾸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함
- 199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된 관람 위주의 문화예술 향수 제고 정책이 한계에 봉착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3,600백만원
- 사업내용
 - 미래의 문화예술 전문가를 꿈꾸는 청소년 대상 예술 창작 프로그램 지원
 - 창조 저변 확대를 위한 아마추어 예술 활동 지원 강화
 -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다양한 아마추어 예술 커뮤니티의 창작 활동 지원
 - 전문 예술 창작 단체와 연계한 창작 지원체계 개발 및 운영

(3) 추진 계획

- 2009년 : 사업 운영 체계 확립 및 타당성 검토
- 2010 ~ 2012년 : 사업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 2018년 : 장기 사업목표 구현, 체계 정착 및 운영

(4) 기대 효과

- 문화예술 향수자를 예술 창조자로 전환시킴으로써 예술 창조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고 침체된 예술 창조의 활성화 기여
- 아마추어 문화예술 창조활동 지원을 통해 생활 문화예술 활동 확산에 공헌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3,600	-	400	400	400	400	2,000
국 비	1,800	-	200	200	200	200	1,000
지방비	1,800	-	200	200	200	200	1,000

3.8 전문 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체계 구축

사업목표

-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을 통한 육성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
- 단시일에 걸친 일회성 지원의 한계를 극복할 집중 지원 프로그램 개발

(1) 추진 배경(필요성)

- 외부 환경의 변화로 지역 문화예술의 특성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중앙의 문화예술에 의해 지배당할 우려 증대
- 소수 예술 엘리트에 대한 지원만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특성화를 달성하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 및 한계점이 존재
- 문화예술 시설의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개인보다 전문 문화예술 단체와의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
-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을 심의하고 평가할 체계 및 기구의 미비로 인한 재정 집행의 비효율성이 존재
- 재정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 단체지원을 전담할 전문 공무원이 미흡
- 관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예술단체별 균등 재정분배 방식을 탈피하여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필요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1,800백만원
- 사업내용
 - 기존의 지역 예술단체에 대한 단기적 지원 정책의 재고 및 개선 방안 마련
 - 전문 예술법인 및 단체 지정 등 우수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장기 지원 프로그램 개발

- 문화예술 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심의 및 평가를 위한 체계와 기구 마련
- 지방자치단체에 문화예술 단체지원을 전담할 전문 공무원 배치 및 확충
- 우수 레퍼토리를 개발하여 장기 공연을 가능케 하는 예술단체의 역량 강화 지원
- 창작 역량이 검증된 예술단체에 대한 집중 지원제도 개발 및 실시

(3) 추진 계획

- 2009년 : 예술단체 현황 파악 및 지원 방향 검토
- 2010 ~ 2012년 : 시범 사업 운영, 문제점 도출과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중기 사업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 2018년 : 장기 사업목표 구현, 체계 정착 및 운영

(4) 기대 효과

- 장래가 기대되는 단체에 대한 집중지원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 제고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1,800	-	200	200	200	200	1,000
국 비	-	-	-	-	-	-	-
지방비	1,800	-	200	200	200	200	1,000

3.9 국내외 교류협력 활성화 지원

사업목표

- 국제 및 국내 예술교류 지원 사업의 다양화와 지원 시스템의 체계화
- 국제 및 국내 예술교류 사업의 발굴 및 협력 사업의 확산

(1) 추진 배경(필요성)

- 세방화(Glocalism) 추세에 맞추어 세계 문화의 수준에 걸맞은 지역 문화예술의 질적 제고에 대한 요구 증대
- 지역 문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해외교류 필요
- 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적 문화예술 행사도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으로 연결 가능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90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국내 타지역 예술축제 및 아트 페어 참가 지원
 -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국제 예술축제 및 아트 페어 참가 지원
 -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지역 내 예술축제 개최를 위한 지원 확충 방안 마련
 -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국제 및 국내 교류협력을 위한 정보제공 체계구축 지원

(3) 추진 계획

- 2009년 : 중장기 계획 수립, 기존 사업 재검토
- 2010 ~ 2012년 : 신규 사업 도출 및 개선방안 마련
- 2013년 : 중기 목표 구현, 중간 평가 및 수정
- 2018년 : 장기 목표 구현, 체계 정착 및 운영

(4) 기대 효과

- 우수 문화예술 단체의 해외 및 국내 교류협력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인 및 단체의 창의력과 경쟁력 제고

(5) 투자 계획

(단위 : 백만원)

재원별	총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이후
계	900	50	50	100	100	100	500
국 비	-	-	-	-	-	-	-
지방비	900	50	50	100	100	100	500

3.10 메세나운동 지원 및 기업 참여방안 개발

사업목표

- 문화예술 단체와 기업 간의 연계를 통한 예술단체-기업의 win-win 전략 수립
- 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기업체의 기여를 유도하는 각종 프로그램 발굴

(1) 추진 배경(필요성)

- 지원 재정의 불안정으로 인해 지역 문화예술 단체의 활동에 대한 지원 정책의 취약성 상존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는 한계에 봉착
- 지역 기업과 문화단체의 결연을 통한 메세나 운동, 기부 제도 활성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확보 노력 필요
- 가치 ‘충북메세나협의회’ 구성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09 ~ 2018년
- 투자계획 : 3,640백만원
- 사업내용
 - 지역 기업체와 문화예술단체의 직접적 결연을 통해 지역문화 발전을 제고할 기업메세나 제도 지원
 - 후원금 등의 새로운 재원 확보와 수익사업, 기부금 제도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 재원조달 방안 확보
 - 찾아가는 메세나 운영으로 기업이미지 및 가치 제고